

# 리아호나

우리는 주님의 손입니다,  
8, 12, 20쪽

하나님은 어떻게  
여러분을 쓰실 것인가?, 28쪽

가정에서 복음에 관련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지지하는 법, 40쪽

여기에  
교회가  
있다

# 멕시코 타스코





사진: GETTY IMAGES

멕시코의 게레로주에 있는 탁스코 데 알라르콘은 한때는 광산촌이었으나 은 장신구 생산과 스페인 식민지 시대의 건축물 및 주변 전원의 아름다움으로 명성을 얻게 되어 현재는 **멕시코의 마법의 도시**[*pueblos magicos*]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이 도시는 지형이 험준하며 도로도 가파르고 복잡하다. 주요 명소로는 18세기에 지어진 산타 프리스카 교회가 있다.

탁스코는 **은세공인의 거리**[*avenida de los Plateros*]에 있는 건물에서 일요일마다 모이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탁스코 지부의 보금자리이기도 하다. 멕시코 이팔라 스테이크에 속한 탁스코 지부는 멕시코에 있는 1,987개의 후기 성도 단위 조직 중 하나이다. 멕시코에는 140만 명의 교회 회원과 34곳의 선교부 및 13곳의 성전이 있다. 또한 멕시코는 교회에서 두 번째로 큰 선교사 훈련원인 멕시코시티 선교사 훈련원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 훈련원은 한 번에 천 명 이상의 선교사를 수용할 수 있다.

- 1876년에 다섯 명의 회원이 멕시코에서 최초로 침례를 받았다.
- 멕시코는 미국을 제외하고 100개의 스테이크가 세워진 최초의 나라였다.
- 1983년에 멕시코 최초의 성전인 멕시코시티 성전이 헌납되었다. 가장 최근에 헌납된 성전은 멕시코 티후아나 성전으로, 2015년에 헌납되었다. 2018년 10월에 멕시코 푸에블라 성전 건축 계획이 발표되었다.
- 하워드 더블유 헌터(1907~1995) 회장은 1994년에 멕시코를 방문해 교회의 2,000 번째 스테이크인 멕시코시티 콘트라라스 스테이크를 조직했다.





성역은 다른  
사람을 구주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일이다

8



거룩한 방식으로 행하는  
성역  
닐 엘 앤더슨 장로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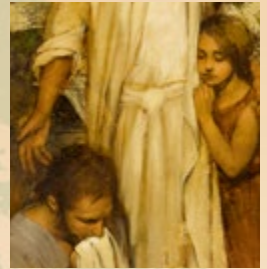
## 우리의 성역을 통해 다른 이들이 치유될 수 있을까?

**어**느 일요일 성찬식 시간에 있었던 일이다. 나는 경전에서 우리가 구주께서 하신 일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읽은 것에 관해 상고하고 있었다.(제3니파이 27:21)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행하신 일들에는 뭐가 있지?' 두 가지 주요한 내용이 떠올랐다. 봉사와 치유였다. 봉사라면 나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치유라니?

치유는 내가 자주 깊이 생각해 온 개념이었다. 나는 살면서 총 16번의 수술을 받았고, 정말 많은 치유를 받아야만 했다! 나는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른 사람들의 치유를 도울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았다. 분명 나에게는 그분과 같은 치유의 권능이 없었다. 그렇다면 주님은 지상에서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분의 사업을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 것일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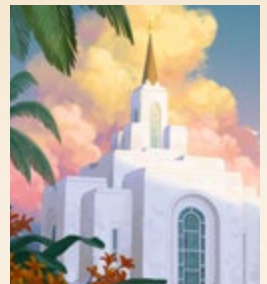
내가 치유되기까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도와주었는지를 깊이 생각했을 때, 나는 삶에서 그들이 나에게 베풀어 준 놀라운 치유의 일들, 즉 위안과 봉사, 성역을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우리가 구주께서 하실 만한 방법으로 다른 이들에게 성역을 베푸는 것에 집중할 때, 다른 이들이 치유를 받도록 돕는다는 개념은 매우 강력하게 다가올 것이다. 우리 모두는 지상의 여정에서 고통을 겪는다. 수많은 사람이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질병을 앓고 있거나 영적으로 고통을 받는다. 우리는 모두 치유가 필요하다. 내가 쓴 기사에서(20쪽) 설명했듯이, 그리고 닐 엘 앤더슨 장로님께서 그분의 기사에서(12쪽) 가르치셨듯이, 우리 모두는 다른 이들이 치유되도록 도움으로써 그들에게 성역을 베풀 수 있다.

진실한,  
메럴리 보이액



주님께 치유받도록  
사람들을 돕는 일  
메럴리 브라운 보이액

20



제자의 길에서 신성한  
인도를 받다  
딘 엠 데이비스 감독

28

## 짧은 기사

- 5 아버지의 부름 ☺  
아버지의 역할에 관한 경전 구절과 선지자들의 유명한 가르침을 읽어 보자.
- 6 신앙의 초상:  
로드리고 키타니아—칠레, 발파라이소 ☺
- 8 성역의 원리:  
성역은 다른 사람을 구주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일이다.
- 12 거룩한 방식으로 행하는 성역  
닐 엘 앤더슨 장로  
성역을 베풀 방법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아들과 딸들에게로 인도하실 것이다.
- 20 주님께 치유받도록 사람들을 돕는 일  
메릴리 브라운 보이액  
고통받는 이들이 치유받도록 돕는 방법을 배워 보자.
- 24 자립에서 오는 축복:  
꽃과 재정적 안정 ☺  
미셸 월
- 26 신약전서에서 얻은 교훈:  
마리아와 마르다 ☺  
카밀 프랑크 올슨
- 28 제자의 길에서 신성한 인도를 받다  
딘 엠 데이비스 감독  
우리가 구주의 제자가 되고자 노력할 때, 하나님께 신성한 인도를 받을 것이다.
- 32 후기 성도의 소리 ☺  
한 순간에 모든 것이 명확해지고 삶이 달라지다; 자신이 선교 사업을 하고 있었음을 깨달다; 어느 형제가 교회로 인도된 과정; 한 여성이 어느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간증을 강화하다.
- 36 우리는 믿는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됨을 믿는다. ☺
- 38 우리 가정, 우리 가족:  
도마뱀불이와 귀뚜라미 이야기: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 ☺  
낸시 토머스
- 40 십 대와 어린이들을 가르치며:  
부모 중 한쪽 또는 양쪽 모두 교회에 참석하지 않을 때 ☺  
카르멜 뉴얼

☺ 짧은 기사



표지  
해방,  
제네디 페이지.

## 섹션

청년 성인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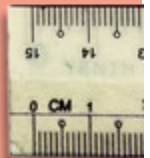
자녀를 언제, 몇 명이나 낳을 것인가, 가족 계획이 생각한 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등은 가족 계획을 세울 때 하게 되는 질문들이다. 이번 호의 청년 성인 섹션에서 다른 청년 성인들의 경험에 관해 읽어 본다.



청소년

51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는 방법, 구원의 계획을 통해 평안을 얻는 법, 전자기기의 방해 받지 않는 방법에 관해 배워 보자.



어린이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법과 이미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법을 알아본다. 성신에 관해 더 배워 본다. 쿡 장로가 브라질을 방문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읽어 본다.



### 온라인 전용 기사



#### 마침내 성전에 가게 되다

라모나 모리스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던 바베이도스의 한 청년 성인이 드디어 성전에 갈 수 있게 된 자신의 경험을 전한다.



사진: GETTY IMAGES

#### 매일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는가?

자립 서비스

새로운 것을 배우면 치매 예방과 정신 건강 증진 등 여러 가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2019년 6월호, 제56권, 제6호  
 리아호나 18606 320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국어판 잡지  
**제일회장단:** 라셀 엠 넬슨, 달린 에이치 욱스, 헨리 비 아이어링  
**십이사도 정원회:** 엠 라셀 벨라드, 제프리 알 율렌드, 데이비드 에프 우호트도르프,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엘 쿡,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닐 앨 앤더슨, 로널드 에이 래스벤드, 게리 이스티븐슨, 데일 지 렌랜드, 게리 더블유 공, 올리세스 소아레스  
**편집자:** 랜디 디 펠그  
**고문:** 브라이언 케이 애쉬턴, 랜들 케이 베네트, 베기 크레이븐, 크리스티나 비 프랑코, 웨런 윙버그, 도널드 엠 홀스트롬, 래리 에스 캐처, 에릭 더블유 코우피쉬케, 린 지 로빈슨  
**관리 책임자:** 리처드 아이 히트  
**교회 잡지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비즈니스 관리자:** 가프 캐넌  
**관리 편집인:** 애덤 시 울슨  
**관리 부편집인:** 라이언 카  
**출판 보조:** 카밀라 카스트리온  
**기사 작성 및 편집 팀:** 마리아 드니스, 데이비드 덕슨,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매튜 디 플리몬,

로리 풀러, 게리 에이치 기프, 존 라이언 젠슨, 살렛 라카발, 마이클 알 모리스, 에릭 비 머독, 샬리 존슨 오데카크, 조슈아 제이 피키, 쟈 핀보로우, 리처드 엠 홀나, 민디 셀루, 차켈 워들레이, 머리사 위디슨  
**편집 인턴:** 브리애나 클 허버트  
**관리 미술 책임자:** 제이 스코트 크누센  
**미술 책임자:** 태드 알 피터슨  
**디자인:** 자넷 앤드류스, 페이 피 앤드러스, 멘디 밴틀리, 시 킴벌 보드, 토머스 차일드, 조슈아 데니스, 데이비드 그린, 콜린 핑클리, 에릭 피 존슨, 수잔 로프그렌, 스콧 엠 무이, 예말리 치예코 레잉턴, 마크 더블유 로빈슨, 브래드 테어, 케이 니를 위근호스트  
**디자인 인턴:** 옌린 포글  
**지적 재산 코디네이터:** 콜레트 네베커 오운  
**제작 관리자:** 제인 앤 피터슨  
**제작팀:** 아이라 글렌 어더어, 줄리 버넷, 토머스 지 크로닌, 브라이언 더블유 지기, 지니 제이 넬슨, 머리사 엠 스피스  
**사전 인쇄:** 조슈아 데니스  
**인쇄 책임자:** 스티븐 티 루이스  
**배부 책임자:** 트로이 알 바커  
**우편 주소:** Liahona, Fl. 23,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0023, USA.

**통권:** 제639호, 제56권, 제6호  
**등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19년 6월 1일(월/간지)  
**발행인:** 이호상  
**편집 및 번역 책임자:** 최봉선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 152  
**인쇄인:** 한국화술정보(주) 세종준  
**리아호나 신청 및 문의 홈페이지:** HTTP://LIAHONA.KR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전화:** 리아호나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전화 080-238-8000)  
**구독료:** 1년 구독료는 7,000원, 권당 가격은 700원입니다.(해외 구독은 개별 문의 바랍니다.)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십시오.  
**예금주:** (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신현은행 100-001-389810  
 리아호나(“나침반” 혹은 “지시기”를 뜻하는 물론경 용어)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살어, 말라가시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비슬라비아어, 사모아어,

세부어, 스와힐리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중국어(간체자),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리바티어, 타갈로그어, 타히티어, 태국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헝가리어 (발행 횡수는 언어에 따라 다름)  
 © 2019 by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저작권 정보:**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리아호나에 실린 자료는 교회 및 가정에서 (교회 부름을 포함하여)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이 권한은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습니다. 시각 자료는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 North Temple St., FL 13,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USPS 311-480) English (ISSN 1080-955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2.00 plus applicable taxes.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Credit card orders (American Express, Discover, MasterCard, Visa) may be taken by phone or at store.lds.org.(Canada Post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POSTMASTER:** Send all UAA to CFS (see DMM 507.1.5.2)NONPOSTAL AND MILITARY FACILITIES: Send address changes to Distribution Services,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USA.

### 추가 정보

복음 자료실 앱과 liahona.lds.org에서 여러분은

- 최신 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전용 기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 과월 호 기사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여러분의 이야기와 피드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구독 신청을 하거나 구독권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 디지털 도구로 학습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가장 좋아하는 기사와 동영상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 기사를 내려받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 가장 좋아하는 기사를 들을 수 있습니다.

### 문의

liahona@ldschurch.org로 질문과 피드백을 보내 주십시오.

신앙을 증진시키는 여러분의 기사를 liahona.lds.org나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십시오.

Liahona, fl. 23  
50 E.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0023, USA

For Readers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June 2019 Vol. 43 No. 6.LIAHONA

# “아버지의 부름은 영원하며, 그 중요성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에스라 테프트 벤슨(2014), 194쪽.

## 아버지의 역할에 관한 유명한 가르침

용기를 북돋아 줄 무언가가 필요  
하다면, 다음 자료를 찾아본다.

- 누가복음 15:20~24
-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아버지”, *리아호나*, 2016년 5월호, 93~97쪽.
- 엘 톰 페리, “아버지, 영원한 부름”, *리아호나*, 2004년 5월호, 69~72쪽.
-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성스러운 부름”,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에스라 테프트 벤슨* (2014) 제15장.
- “가정에 깃드는 사랑”,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해롤드 비리*(2000년) 제14장.

## 로드리고 퀸타니아

칠레 발파라이소



건설 현장 사고로 걸을 수 없게 된 로드리고 퀸타니아는 이제 더는 용접공으로 일할 수 없었고, 다른 일자라도 얻기 힘들어졌다. 그러나 로드리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과 가족을 위해 준비하신 계획을 신뢰하며 신앙을 지니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레슬리 닐슨, 사진 작가

뭔가 정말로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우리의 반응은 두 가지 중 하나로 나타난다. 하나님께 화가 나서 더는 교회와 엮이고 싶지 않다며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계속 성장할 수도 있다.

나는 내 신앙을 잃지 않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는 질문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쪽 길로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나는 시련이 닥칠 때 그 시련을 이겨 낼 방법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련해 주신다는 것을 안다. 내가 회복할 때 성신을 동반하는 것은 매우 중요했다. 다른 직업을 찾아야 했기에 나는 영의 인도를 구했고,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삶이 바뀌는 사고나 사건을 겪은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말한다.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에 남아 있으세요. 복음에 충실하세요. 복음이 없으면 인생이 더 힘들어져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노력하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채워 주실 거예요.”



### 추가 정보

[ids.org/go/6196](https://ids.org/go/6196)에서 남아프리카의 리볼레츠웨 고프리 목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장애를 딛고 나아가게 되었는지 알아본다.

[ids.org/go/9184](https://ids.org/go/9184)에서 장애와 관련된 교회 자료들을 알아본다.

[ids.org/go/18](https://ids.org/go/18)에서 더 많은 신앙의 초상 기사를 볼 수 있다.





## 성역의 원리

# 성역은 다른 사람을 구주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일이다

예수께서는 다르다고 여겨지는 이들과 함께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다.  
그분은 그들이 지닌 신성한 잠재력을 보셨다.

**구** 주와 같이 성역을 베풀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우리는 자신과 다른 누군가에게 성역을 행하도록 지명받는 경우가 있다. 이는 우리가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가 된다.

문화, 교육, 인종, 수입, 연령, 과거나 현재의 행동, 그 외의 여러 차이점 때문에 우리는 제대로 그 사람을 알기도 전에 선불리 판단할 때가 있다. 이러한 속단은 편견의 주원인이 되므로, 구주께서는 이에 대해 경고의 말씀을

주셨다.(사무엘상 16:7; 요한복음 7:24 참조)

우리는 차이를 극복하고 구주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을까? 우리는 사람들의 참모습과 잠재성을 보고서 그들을 사랑하는 법을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 바라보고 사랑함

성경에는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는 방법을 여쭙는 친숙한 일화가 나온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마가복음 10:21)

칠십인인 에스 마크 파머 장로는 수년 전에 이 경전 구절을 공부하던 중 이야기의 한 부분이 갑자기 새롭게 와닿는 경험을 했다고 한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저는] 이 구절을 듣자, 주님께서 잠시 그대로 청년을 바라보시는 장면이 머릿속에 생생하게 그려졌습니다. 주님은 마치 청년의 영혼을 깊숙이 꿰뚫어 보시고 그의 선함과 잠재력을 알아보심은 물론, 그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도 이해하시는 듯 그를 보셨습니다.

그다음 한 마디는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이 선한 청년에게

강한 사랑과 연민을 느끼셨으며, 그렇게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으로 그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소유한 것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요구는 극히 어려운 것이었지만, 청년은 그토록 큰 사랑을 한몸에 받고서 과연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 저는 상상해 보았습니다. ...

저는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으로 채워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 그 사랑을 느끼고 변화하겠다는 소망을 갖게 될 수 있을까?]'를 [자문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단지 제 주변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는가가 아니라, 주님께서 부자 청년을 보셨던 것처럼 저도 그들의 참모습과 잠재성을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더 구주와 같이 될 수 있을까요?’<sup>1</sup>

##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법을 배움

구주의 관점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법을 배울 때 풍성한 보상이 뒤따른다. 이러한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데 도움이 될 몇 가지 제언이 있다.

### 그들에 대해 알아본다.

가볍게 아는 정도를 넘어서서 진정으로 알기 위해 노력한다. 관계를 발전시키려면 시간과 신실한 노력이 든다는 점을 이해한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2018년 8월호 성역의 원리 기사인 “의미 있는 관계 맺기”를 참조한다.)

### 자기 자신을 점검한다.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내리고 있는 판단에 주의를 기울인다. 다른 이들에 대해 어림짐작하는 점을 적어 본 다음, 그런 식으로 느끼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 평가하지 않는다.

상황이 개인의 가치를 규정짓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만일 여러분이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봐 주기를 원할지 그들의 입장이 되어 고려해 본다. 어떤 사람의 선택과 행위를 그의 본질적인 가치 및 신성한 잠재력과 분리해서 생각한다면 구주의 관점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

그들 개개인의 이름을 부르며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진실한 우정을 쌓는 과정에서 인내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 자신이 행하는 봉사에 대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해 본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과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예수께서는 부자, 가난한 자, 통치자, 서민과 같이 다양각색의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다. 사람들은 그분의 모습과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주변 상황만 보고 주님을 평가했다. 그분이야말로 그릇된 평가의 피해자가 되실 때가 많았다. “그는 …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 그는 …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이사야 53:2~3)

### 행하라는 권유

이제까지와는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할 사람이 있는가?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기 위해 무엇을 하겠는가?



## 여러분의 경험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성역을 베푸는 경험이나 성역을 받은 경험을 보내 주십시오. [liahona.lds.org](http://liahona.lds.org)에서 “기사나 피드백 제출”을 클릭하십시오.



### 그리스도와 같은 관점

한 자매가 그리스도와 같은 관점으로 이웃을 바라보는 방법을 배운 이야기를 전한다.

“줄리아(가명)는 우리 집 근처에 살았는데, 친구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 줄리아는 볼 때마다 언짢고 성이 나 보였다. 그렇지만 나는 그녀에게 친구가 되어 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냥 스쳐 가는 가벼운 친구가 아닌 진정한 친구 말이다. 나는 줄리아를 볼 때마다 말을 걸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관심을 보였다. 우리는 서서히 친분을 쌓았고, 그러면서 나는 마음이 기뻐했다.

하루는 줄리아네 집에 가서 왜 교회에 나오지 않기로 결심했는지 물어보기로 했다.

나는 줄리아에게 가까이 사는 가족이나 친척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멀리 떨어져 사는 남동생이 하나 있기는 하지만, 일 년에 한 번 꼴로 전화 통화만 하는 사이였다. 줄리아가 가족과 교회에 대해 쏟아내는 비통함과 분노와 좌절의 말을 듣는 동안, 나는 이 자매에게 거부할 수 없는 강한 연민과 사랑을 느꼈다. 그 고통과 좌절이 그대로 느껴졌고, 얼마나 외로운 인생을 살아왔는지 깨달을 수 있었다. 마치 내 뒤에서 누군가 이렇게 속삭이는 듯했다. ‘나도 그녀를 사랑하노라. 그녀를 사랑하고 존중해 주어라.’

나는 앉아서 줄리아가 마음을 모두 털어놓을 때까지 들어 주었다. 나는 사랑과 연민을 느꼈다. 이 자매는 사랑받는 느낌을 받아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었다. 그 순간, 나는 줄리아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나는 내 방문을 받아 준 것에 감사를 표한 뒤, 사랑과 존중을 담아 줄리아를 꼭 안아 주고는

집을 나왔다. 그 방문을 통해 자신이 내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지 그녀는 전혀 알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 눈을 뜨게 하셨고, 내가 더 큰 연민으로 사랑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음을 알려 주셨다. 나는 줄리아에게 친구를 넘어서서 가족과도 같은 사람이 되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누군가의 인생에 의미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성스러운 일이다. 우리는 기도와 인내와 영의 도움으로 더욱 그리스도와 같은 관점에서 이를 행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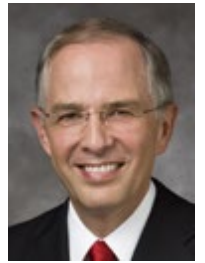
1. 에스 마크 파머,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리아호나, 2017년 5월호, 115쪽.

### 추가 정보

더욱 큰 포용력을 갖는 법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을 때는

- 2017년 9월호 리아호나에 실린 “우리는 더 잘할 수 있다: 다른 이들을 무리 안으로 포용하기”를 읽는다.
- [Lds.org/go/61911](http://Lds.org/go/61911)에서 이러한 원리에 대한 교회 지도자들의 설명을 시청한다.





닐 엘 앤더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 거룩한 방식으로 행하는 성역

여러분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가 되기를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당신의 특별한 아들딸들을 만나게 해 주시리라는 것을 약속합니다.

**T**he *Narcissism Epidemic*[나르시시즘의 전염]이라는 책은 다음과 같은 과장된 현대 미국 문화의 예를 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리얼리티 TV 프로그램 속의 한 소녀가 본인의 16번째 생일 파티를 기획하며 대로를 차단하고 싶어 한다. 악대의 행진에 뒤이어 자기가 빨간 카펫 위로 멋지게 입장하기 위해서이다. *My Beautiful Mommy*[나의 아름다운 엄마]라는 책은 요즘 유행하는 ‘엄마의 변신’ 프로젝트에 따라 성형수술을 받는 엄마의 자녀들에게 성형수술에 관한 설명을 한다. 이제는 가짜 파파라치를 고용해서 여러분이 밤에 외출할 때 여러분을 따라다니며 사진을 찍게 할 수도 있고, 심지어 그런 사진이 실린 가짜 유명인 잡지를 사서 집으로 가져갈 수도 있다. 인기 있는 어떤 노래는 드러내놓고 비꼬지는 않지만 ‘세상이 날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해!’라고 말한다. ... 아이들이 ‘슈퍼모델’이라고 수 놓인 턱받이를 한 채 ‘번쩍거리는 고무 젓꼭지를 빼는 동안 부모는 요즘 식으로 다시 만든 *This Little Piggy Went to Prada*(프라다로 놀러간 아기 돼지)라는 동요를 읽는다.”<sup>1</sup>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을 강력하게 거부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던 구주를 따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마태복음 20:26~28)

우리는 그분이 하신 다음 말씀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한복음 13:34; 또한 요한복음 15:12 참조)

“내 어린 양을 먹이라 ... 내 양을 치라.”(요한복음 21:15,16)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누가복음 22:32)

“약한 자를 도우라. 처진 손을 일으켜 세우며, 연약한 무릎을 강건하게 하라.”(교리와 성약 81:5)

다음은 주님의 교회 회원 가운데에서 행해지고 있는 그리스도와 같은 성역의 예입니다. 브리검 영 대학교에 다니는 한 학생은 최근에 다음과 같은 글을 썼습니다.

“저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어느 날은 너무 힘들어서 눈물이 터지기 직전이었죠. 저는 계속해 나갈 힘을 달라고 조용히 애원하며 간구했어요. 바로 그 순간, 룸메이트가 저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주었어요. 경전

구절을 나누며 간증도 전했어요. 그 메시지는 절망의 순간에 제게 커다란 힘과 위로와 희망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서로에게 이미 성역을 잘 행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 생각을 몇 가지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말하려는 첫 번째 요점은 이것입니다. 둘째 계명을 실천하기 전에 첫째 계명을 먼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한 젊은이가 구주께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마태복음 22:36~39)

이웃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베푸는 성역을 더 거룩하게 행하는 능력은 우리가 첫째 계명을 얼마나 굳건히 지키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 또 다른 종류의 성역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베퉴 수 있는 독특하고도 신성한 성역의 은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회복된 복음에 정착하여 변하지 않고 흔들림이 없으며 계명을 정확하게 지키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 말입니다.(에베소서 3:17; 골로새서 1:23; 니파이전서 2:10; 모사이야서 5:15; 엘마서 1:25; 제3니파이 6:14 참조)

여러분이 익히 알고 계신 내용을 몇 가지 짚어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젊은 세대들이 믿음, 특히 종교에 대한 믿음을 잃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1975년에 BYU를 졸업할 당시만 해도, 종교를 갖고 있는 청년 인구(18~24세)는 90%를 육박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현재는 66%입니다. “청년 인구 중 3분의 1은 아무런 종교 조직에도 속해 있지 않습니다.”<sup>2</sup>

2001년에 종교학자 로버트 시 폴러는 *Spiritual, But Not Religious*[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는 않은 사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sup>3</sup> 공식적인 종교 단체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개인의 영성을 강하게 추구하던 경향이 20년 전에는 사실이었을 수도 있지만, 오늘날에는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현재 미국의 젊은 성인들은 이전보다 덜 기도하고, 하나님도 덜 믿고, 성경도



덜 믿으며, 계명도 덜 믿습니다.<sup>4</sup> 그런 세계적 추세가 우리에게, 심지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들에게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믿는다면 순진한 생각입니다.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돌보려면 이타적이고 섬세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보살핌은 복음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종교인과 비종교인을 초월한 선한 사람들이 교회 안팎에서 이런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는 훌륭하고 친절할 사람들이 많이 있으며, 우리는 그들에게서 그런 좋은 점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로 개종한 회원들만 행할 수 있는 성역은 이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구주의 제자인 우리에게 성역을 행할 기회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는 친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돕고, 룸메이트에게 매일 물문경을 읽으면 실제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친절하고 방법으로 상기시키며, 와드 회원에게 교회의 표준은 그저 일련의 규칙이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행복해지는 길임을 보여 줄 때 옵니다.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누군가가 타이어 고치는 것을 돕거나, 이웃을 병원에 데리고 가거나, 슬픔을 겪고 있는 누군가와 점심을 먹거나, 누군가의

기분이 좋아지도록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첫째 계명을 따르는 사람은 이 중요한 봉사 행위에 자연스럽게 덧붙여서,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에게는 격려를 건네고, 신앙이 흔들리고 있거나 올바른 길로 되돌아오는 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들의 신앙을 강화하기 위해 지혜로운 조언을 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권한전대, 서로 영적으로 성역을 베푸는 노력을 강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성역을 베푸는 것은 쿠키를 굽거나 농구 경기를 하는 일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역을 더 거룩하게 행하려면 결국 여러분의 마음과 신앙을 열어야 합니다. 친구가 보이는 긍정적인 성장을 격려할 때는 용기를 내야 하며, 여러분이 보고 느끼는 부분이 제자의 길에 맞지 않을 때는 그에 관해 우려를 표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독선적인 사람이 되자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더 거룩한 방법으로 성역을 베풀 때, 특히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강화함으로써 영적으로 용기를 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영감을 불어넣기 위해 다음과 같이 충분히 있을 법한 상황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친구가 휴대전화 게임으로 과도한 시간을 보내면서도 복음 주제와 관련된 대화에는 거의 끼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어떤 와드 회원에게 외설물에 관련된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든다.
- 친구들이 단정치 못한 사진을 찍고 게시하는데 엄청난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
- 한때 물문경 이야기를 즐겨 하던 사람이 이제는 물문경에 관해 일절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예전에는 성전에 가는 걸 정말 좋아했던 가족이 이제는 성전에 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예전에는 선지자의 권고에 관해 신앙을 가지고 말하던 친구가 이제는 비판적으로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성전 성약을 상징하는 옷을 입는 데 무관심해진 귀환 선교사를 알고 있다.
- 어떤 와드 회원이 일요일에 교회 이외의 장소에 갈 변명거리를 찾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친구가 사소한 일에서 부정직해졌음을 느낀다.
- 선교 사업에서 돌아온 직후에는 눈에 빛이 가득했지만, 이제는 그 빛이 바랜 듯 보이는 사람을 알고 있다.
- 성스러운 것에 관해 농담하는 친구가 있다.
- 데이트 때문에 풀이 죽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다.
- 합당성을 두고 타협했던 탓에 신앙에 영향을 받고 있는 친구에게 회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여러분은 이러한 상황이나 비슷한 다른 상황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까? 어떤 이름이 머릿속에 떠오릅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에베소서 6:12) 전 세계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를 꼽으라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더 큰 신앙을 지니고, 계명을 지키려는 더 큰 의지를 갖는 것입니다.

### 일대일로 행하는 성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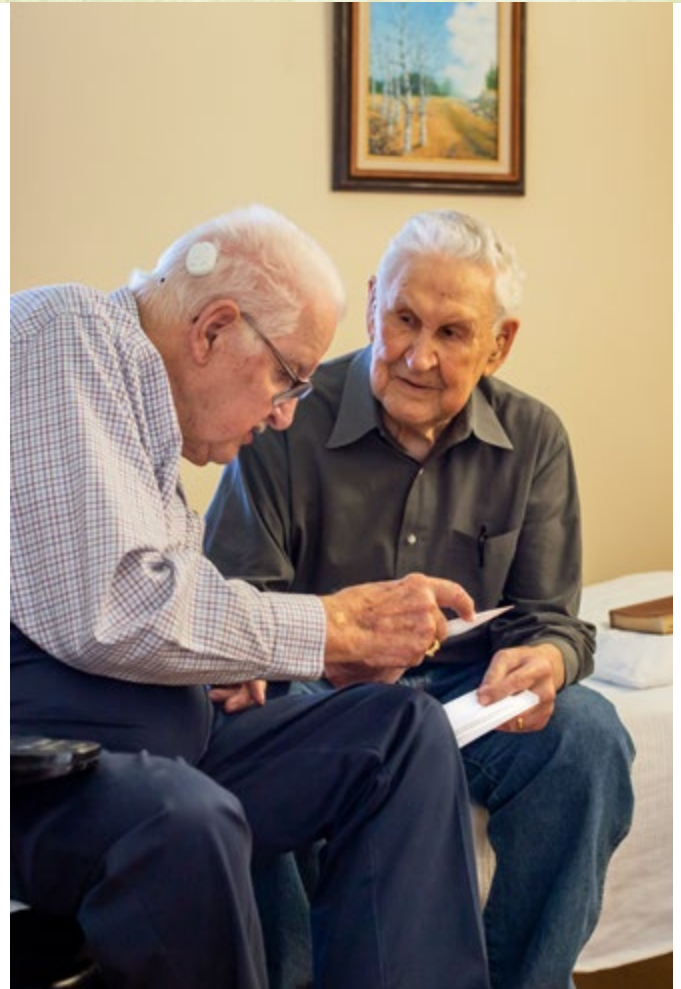
구주의 본을 따른다면, 우리가 행하는 대부분의 성역은 일대일의 형태를 띠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우물가에 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 않게 하옵소서 ...

여자가 이르되 메시야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요한복음 4:13~15, 25~26 참조)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을 선언할 때조차도 개인에게 성역을 베풀었습니다.

구명 난 타이어를 바꾸는 것과 달리, 영적 문제는 성역을



한 번 베푸는 것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신앙을 회복하도록 도움을 주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대화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런 도움은 소방 호스에서 한 번에 왕창 쏟아지는 물이라기보다는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더 가깝습니다.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돌이켜 다시 구주와 그분의 속죄에 의지하도록 도우려면 거듭해서 성역을 행해야 합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성역을 베풀기 위해서는 성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러셀 엠 넬슨 회장님은 이 주제에 관해 2018년 4월 연차 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힘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성신의 인도와 지침과 위안의 영향력 없이는 영적으로 살아남는다는 것이 불가능할 것입니다.”<sup>5</sup>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개인적인 계시를 얻기 위해, 저는 여러분의 영적인 능력을 지금보다 더 키우시도록 촉구합니다.”<sup>6</sup> 그분은 우리에게 기도하고, 경청하고, 생각을 기록하고, 행동을 취하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기록한 방식으로 성역을 행할 때 이 권고를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역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에 관해 기도하고, 경청하고, 생각을 기록하고, 행동합시다.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키울 기회를 얻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도울 사람 중에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인의 과부에게 성역을 베푸셨을 때, 그분은 나인 성으로 가시던 도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그의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키셨습니다. 그분의 성역은 그 과부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누가복음 7:11~15 참조)

성역의 기회가 오기를 기도하고, 경청하며, 생각을 기록하고, 그런 다음 사람들을 만나면 행동을 취할 준비를 하십시오.

다음과 같은 시편 저자의 말씀은 항상 저에게 울림을 줍니다. “오른쪽을 살펴 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시편 142:4)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 영이 거하도록 시간을 내십시오

성신의 도움을 받기 위해 우리는 생각과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세대에서는 첨단 기술 장치를 사용하는 방법에 관한 규율과 통제가 필요합니다. 애덤 알터는 자신의 저서인 *Irresistible*(헤어나올 수 없는 유혹)에서 기술과 소셜 미디어 중독 행위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인스타그램의 창립 엔지니어 중 한 명인 그레그 호크무스가 논평한 다음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항상 클릭할 해시태그는 넘쳐난다. 그것은 마치 유기체처럼 살아 움직여서, 사람들을 강박적으로 사로잡을 수 있다.”<sup>7</sup>

알터 씨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인스타그램은 다른 많은 소셜 미디어와 마찬가지로 밀 빠진 독이다. 페이스북도 끝이 없다. 넷플릭스는 자동으로 시리즈의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간다. 틱톡은 사용자에게 더 나은 데이트 상대를 찾기 위해 계속 화면을 넘기도록 권한다. ... ‘디자인 윤리학자’인 트리스탄 해리스에 따르면, 문제는 사람들의 의지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자제심을 무너뜨리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화면 저편에 무수히 많다’는 데 있다.”<sup>8</sup>

알터 씨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좋아요’를 보면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목표를 달성하거나 자신의 트윗을 수백 명이 공유하는 것에서 보상을 받는 것처럼 신경학적으로 기분이 좋아진다고 한다. 첨단 기술과 게임, 대화형 환경을 만들어 내고 다듬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에 매우 능숙하다. 그들은 수백만 명의 사용자들과 수천 가지 테스트를 실행하여 어떻게 조정하면 효과가 있고 또 어떻게 하면 효과가 없는지, 어떤 배경색과 글꼴 및 오디오 신호가 참여를 극대화하고 불만을 최소화하는지를 알아낸다. 그런 경험이 진화하면, 그것은 전에 없던 저항할 수 없는 강력한 경험이 된다. 2004년에는 페이스북을 재미로 했지만, [오늘날에는] 페이스북에 중독된다.”<sup>9</sup>

영이 우리 안에 거하려면 우리에게 그럴 만한 시간과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십시오. 의도적으로라도 첨단 기술 장치에 접근할 수 없는 시간을 정하십시오.

2018년 4월 연차 대회에서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인 엠 러셀 벨라드 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스마트 기기와 더불어 온라인상에서 살다시피 합니다. 그들은 밤낮으로 얼굴을 비추는 화면과 고요하고 세미한 영의 음성을 차단하는 이어폰과 더불어 생활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내어 이러한 전자 기기와의 연결을 차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음성을 들을 기회를 놓치고 말 것입니다.[시편 46:10] 주님께에서 영감을 받은 현대 기술의 발전을 이용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것들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합니다.”<sup>10</sup>



## 서로 강화하십시오

BYU 학부생 시절, 제게 가늠할 수 없는 영원한 영향력을 끼친 제 아내 캐시를 제외하고, 저의 영적인 기초를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 룸메이트가 선교 사업을 전후해서 한 명씩, 두 명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현재 BYU의 조직 행동 교수인 리드 로비슨입니다. 저는 선교 사업 중에 그를 만났고, 나중에 우리는 룸메이트가 되었습니다. 리드가 정확히 계명을 따르는 모습과 선지자에 대한 그의 사랑과 구주에 대한 확고한 간증은 저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강화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난 45년 동안 계속해서 저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제가 언급할 또 다른 룸메이트는 현재 미국 유타주 세인트조지에 사는 테럴 버드입니다. 테럴을 만나게 된 것은 우리가 미국 아이다호주

포커텔로에 있는 고등학교를 함께 다녔기 때문이었습니다. 농구도 같이 하긴 했지만, 우리의 우정이 싹튼 것은 제가 그의 영적인 성숙을 눈여겨보면서부터였습니다. 그는 당시 자신이 깨달은 영적인 통찰과 자신이 읽고 배우던 인생의 원리를 거리낌없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는 17살짜리 소년이 하는 그런 이야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BYU에서도 함께 방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는 컴퓨터가 없었고 타자기만 있었습니다. 테럴은 자기에게 의미 있는 성구와 훌륭한 성품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주는 인용문을 찾아 타자기로 친 뒤, 그것을 자주 꺼내 읽을 수 있도록 작은 상자에 보관했습니다. 그가 천 개 이상의 성구와 인용문을 가지고 있다 해도 별로 이상한 일은 아니었으며, 그는 그중 다수를 암기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4시부터 7시까지 도서관을 청소하는 일을 하고 있었고 듣고 있는 수업도 정말 많았지만, 테럴을 보면서 저도 저만의 상자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50년이나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제가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 인용문이 하나 있습니다.

생각은 만물을 빚고 만드는 본래의 힘,  
사람은 곧 생각이니  
생각의 도구로, 원하는 모양을 빚는다,  
천 가지의 즐거움을, 천 가지의 아픔을  
마음에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주위는 그를 비추는 거울일 뿐.<sup>11</sup>

물론 저는 이와 같은 힘찬 성구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요한복음  
11:25~26)

테럴은 BYU 신입생이었던 제게 평생 영향을 끼친 경건 말씀과 지혜가 담긴 말씀을 마음에 새기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중요한 시기에 저를 영적으로 돌보아 준 리드 로비슨과 테럴 버드에게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제 이웃인 토머스 엘 케이가 쓴 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나이다, 위안을 주는 모든 이와  
진심으로 염려해 주는 이들과  
약한 자를 팔로 감싸 안아 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로 애원하는 이들을 주시니  
하나님께 감사드리나이다, 마음을 듣는 이들과  
그 말을 귀 기울여 듣는 이들과  
눈빛 하나 손짓 하나가





세상 모두보다 더 중함을 아는 이들을 주시니  
 하나님께 감사드리나이다, 손을 들어 올리는 이들과  
 약한 무릎을 강건하게 하는 이들과  
 고요한 성역으로  
 영혼을 구하는 이들을 주시니.<sup>12</sup>

사랑하는 친구 및 동료 제자 여러분, 저는 구주께서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압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으며, 이 거룩한 사업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벨슨 회장님은 지상에서 그분의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지상에서 보내는 시간은 영원토록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가 되기 위해 기도하며, 개인에게 성역을 베풀고, 계시를 받을 역량을 기르고, 성신의 영향력을 신뢰한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당신의 특별한 아들딸들을 만나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은 그들에게 성역을 베푸는 천사가 되어 그들의 삶을 영원히 축복하게 되리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은 더 거룩한 방법으로 성역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필멸이라는 가장 중요한 여정을 이어 가는 동안, 이 점을 중요히 여기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구주에 관해, 그리고 그분에게 여러분의 영원한 가치가 어떠한지에 관해 분명하고 확실한 간증을 전합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딸로, 당신의 제자로 품어 주실 것입니다. ■

2018년 4월 10일 브리검 영 대학교 영적 모임 말씀인 “A Holier Approach to Ministering”에서 발췌함.

주

1. Jean M. Twenge and W. Keith Campbell, *The Narcissism Epidemic: Living in the Age of Entitlement* (2009), 1.
2. Jean M. Twenge, *iGen: Why Today's Super-Connected Kids Are Growing Up Less Rebellious, More Tolerant, Less Happy—and Completely Unprepared for Adulthood* (2017), 121; see also Figure 5.1, 121.
3. See Robert C. Fuller, *Spiritual, But Not Religious: Understanding Unchurched America* (2001).
4. See Jean M. Twenge, *iGen*, 119–42.
5. 러셀 엠 벨슨, “교회를 위한 계시와 우리 삶을 위한 계시”, *리아호나*, 2018년 5월호, 96쪽.
6. 러셀 엠 벨슨, “교회를 위한 계시와 우리 삶을 위한 계시”, 95쪽.
7. Greg Hochmuth, in Adam Alter, *Irresistible: The Rise of Addictive Technology and the Business of Keeping Us Hooked* (2017), 3; see also Greg Hochmuth, in Natasha Singer, “Can’t Put Down Your Device? That’s by Design,” *The New York Times*, Dec. 5, 2015, nytimes.com.
8. Adam Alter, *Irresistible*, 3; see also Tristan Harris, in Natasha Singer, “Can’t Put Down Your Device? That’s by Design.”
9. Adam Alter, *Irresistible*, 5.
10. 엠 러셀 벨라드,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 *리아호나*, 2018년 5월호, 10쪽.
11. James Allen, *As a Man Thinketh* (1902), frontispiece.
12. Thomas L. Kay, “Saints,” in *The Road I’ve Taken* (2016), 16; see also “Saints,” music by Rachel Bastian, *New Era*, Sept. 1999, 51.



# 주님께 치유받도록 사람들을 돕는 일

메릴리 브라운 보이액

**어**느 일요일에 나는 이러한 경전 구절을 읽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나의 복음이니라. 또 너희는 나의 교회 안에서 너희가 행하여야 할 일을 알고 있나니, 이는 너희가 본 바, 나의 하는 일 그것을 너희도 하여야 할 것임이니라.”(제3니파이 27:21; 강조체 추가)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행하신 일들에는 뭐가 있지?’ 가장

먼저 봉사와 치유라는 두 가지 단어가 떠올랐다. 봉사는 할 수 있는데, 치유는 어떻게 할 수 있지? 내겐 사람들을 치유하는 능력이 확실히 없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능력이 있는 건 아닐까?

최근에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내 몸은 극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순간적으로 내가 치유되는 과정에 도움을 준 분들이 떠올랐고, 그 수를 세어 보니 꽤 여럿이었다. 그들이 내가 치유되도록 도울 수 있었다면, 나도 똑같이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모두 치유자의 기술을 배울 수 있다.<sup>1</sup> 신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주변 사람 중에는 우리의 도움으로 축복받을 수 있는 이들이 많다.

### 아픈 사람들을 방문하는 일

모사이야서 4장 2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나는 너희가 각 사람이 가진 바에 따라 너희 재물에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기를 바라노니, 이를테면 주린 자를 먹이며, 벗은 자를 입히며, 병든 자를 찾아보고 구제하되, 영적으로나 현세적으로 그들의 필요에 따라 행함 같은 것이라.”

우리의 고통이 신체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우리는 아플 때에 깊은 고립감을 느낄 수 있다. 사람들이 회복하기 위해 침실이나 병실에서 고독한 시간을 길게 보내면 그들의 영이 침체되기 쉽다. 이렇게 어두운 기운이 차오를 때, 다정한 친구나 가족의 방문은 그들의 삶에 한 줄기 빛이 들게 할 수 있다.

아픈 사람들을 방문하는 요령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 몇몇 여성은 나아지는 과정 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받았는지 묻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미국 애리조나주에 사는 주디는 이렇게 말했다. “힘든 시기에는 이야기를 들어 주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잘 들어 주되 불쌍히

신체적, 정신적, 영적인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주께서 주시는 치유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때, 우리는 치유자의 역할을 행하는 것이다.

여기는 것은 금물입니다.” 인내심 있게 진심을 다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면, 나아지려 노력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린다는 한 친구가 자신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를 이야기했다. “제 인생에서 특별한 사람들이 기억나네요. 특히 제 말을 진심으로 들어 주고 부드러운 영의

권고를 주었던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제가 서른 살 때 남편은 다섯 자녀를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났어요. 하지만 제 친구 캐런 덕분에 저는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게 되었죠. 캐런은 언제나 제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민감하게 감지했고, ‘들을 귀를 열어 두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딸인 저의 아름다운 유대감을 캐런이 계속 상기시켜 준 덕분에 저는 외롭다고 느낀 적이 없었어요.”

형제 및 자매 성역자들은 특히 이러한 치유자의 기술을 행할 수 있다. 성역자들은 시련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필요 사항을 잘 알아야 한다. 그들이 피곤해할 때는 짧게 방문하는 것이 적절하다. 외롭고 지루해할 때는 더 오래 머물러 주면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개인의 성향도 고려해야 한다. 어떤 사람은 혼자 조용히 있고 싶어 하는 반면, 대화를 나누고 정신적인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파악하고 나서 그에 맞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

### 서로의 짐을 지는 일

엘마는 물문경에 나오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무리 안으로 들어와, 그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기 원하며 기꺼이 서로의 짐을 저 가볍게 하고자” 하는지 물었다.(모사이야서 18:8) 이는 구주의 모범을 따르려는 우리의 결심을 아주 잘 묘사한 질문이다.

우리는 각자 이런저런 짐을 지고 있다. 짐을 감당하기 가장 힘들 때는 아프거나, 정신적인 질병 또는 영적인 고난으로



## 우리는 주님의 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을 완벽하게

보살피는 방법을 아십니다. 구주께서 내미신 손길에 닿은 사람들은 고양됩니다. 그 결과, 더 훌륭하고 강하고 나은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손이라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너희가 곧 내 손이니라”, 리아호나, 2010년 5월호, 70쪽.

어려움을 겪을 때이다. 치유자의 기술 중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겪을 때 그들의 짐을 져 주는 것이다.

미국 유타주에 사는 새넌은 이웃들에게 받았던 도움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어린 아들을 묘지에 묻고 왔던 날, 우리가 장례식에 있었던 시간 동안 이웃들이 모여서 우리집 정원의 조경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을 보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아름다운 관목과 나무, 꽃을 심고 잔디까지 새로 깔았죠. 상상할 수 없는 슬픔을 겪으면서도 이웃들이 보여 준 사려 깊은 사랑과 지지 덕분에 치유의 길에 들어설 수 있었어요. 매년 아름다운 풀이 되살아날 때마다 사랑과 우리의 삶이 영원하다는 점을 되새기게 돼요. 정말로 성스럽고도 상징적인 이 경험을 절대로 잊지 못할 거예요.”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봉사하는 동시에 시의회 재선에 나섰을 때, 나는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그때 남편은 실직 상태였고, 우리는 험난한 여러 가지 시련을 겪고 있었다. 그때 나의 보좌들은 진정으로 “서로의 짐을 지”기로 결심하고, 내가 진 짐을 나누어 주었다. 감독님은 내가 받은 책임 중 일부를 맡아 주셨다. 남편도 요리와 가사를 도맡아

주었다. 내가 진 짐이 사라지지는 않았으나, 치유자의 기술을 행하는 수많은 사람이 짐을 나눠 지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진정으로 마음이 겸손해졌다.

### 위안을 주는 일

엘마는 이와 더불어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은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기꺼이 슬퍼하고, 또한 위로를 필요로 하는 자들을 위로”한다고 가르쳤다.(모사이야서 18:9)

위안을 주는 행위는 공감, 친절, 사려 깊음, 보살핌, 사랑 및 자애를 아우른다. 그것은 병자나 고통을 받는 이들이 자신의 시련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사랑의 팔로 감싸 안아 주는 것이다.

루앤(가명)은 영적인 시련과 도덕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 자신을 위로해 준 사람들에게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들은 현재의 제 모습이 아니라 더 훌륭하고 지혜롭고 친절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저의 잠재력을 봐 주었어요. 저는 예전의 제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때로는 저의 무지함에 약간 당혹감을 느낍니다. 제 범법과 죄악에 대한 수치심을 느끼는 거죠. 그러나 당혹감과 수치심이 주는 고통 뒤에는 언제나 은혜와 자비, 용서, 사랑이라는 치유의 유향이 따랐습니다. 곁을 지키며 그 유향을 발라 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때, 고통은 물러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가 나아지도록 도와주고 있었음을 알게 되죠. 아마도 그들이 제게 은혜의 고치라고 표현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할 거예요. 그 안에서 위대한 치유자이신 구주께서 저를 고치실 수 있게 말이죠. 저를 변화시키도록, 제 마음을 변화시키도록요.”

“그들은 위대한 치유자이신 구주께서 저를 고치실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주었어요.”

병자에게 위안을 줄 때 중요한 부분은 그들이 위대한 치유자를 바라보도록 돕는 것이다. 유타주에 사는 사브리나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을 찾는다가나 그분께 되돌아가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주는 것만큼 훌륭한 치유는

없습니다. 즉, 여러분이 필요 이상으로 더 강해지려 하고 모든 것을 혼자 힘으로 해내려 하면서 하나님께는 진정으로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지요.”

아픈 사람에게 위안을 주고 긍정적인 태도를 갖도록 도우려면 영에 민감해야 한다. 나는 전에 몇 달 동안 하루에 보통 두세 시간 동안 얇은





잠밖에 못 자는 불면증에 시달린 적이 있다. 나는 극도로 불안하고 기진맥진해져서 고통스러웠기에 여러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 보았지만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결국 한 친구가 후기 성도인 의사를 소개해 주었고, 그는 즉시 정확한 진단을 내렸다. 그러나 진단에 이어 그가 한 말은 나를 놀라게 했다. “메릴리,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자신의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는 이어서 「살아 계신 그리스도: 사도들의 간증」을 읽고 매일 잠깐씩 명상을 해 보라고 격려했다.

몇 차례 명상을 시도해 보아도 별 다른 효과가 없었지만, 나아지고 싶은 마음은 절박했다. 다음 날, 나는 강력한 다음 말씀을 조용히 명상했다.

“그분의 비길 데 없는 삶의 실재와 그분의 위대한 속죄 희생의 무한한 가치에 관해 간증드립니다.”<sup>2</sup> 우리의 위대한 치유자에 대한 간증을 숙고하기 시작하면서 나의 영혼에 위안과 평안이 찾아왔음을 알게 된 순간 전율이 느껴졌다.

## 주의를 기울이는 일

예수께서 보이신 치유의 업적을 본받기 위해 경전을 공부해 보면 그분께서 한 가지 행동을 거듭 반복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주위에 있는 이들에게 주의를 기울이신 것이다.

그리스도는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셨다. 그분은 문화적인 금기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셨다. 그분은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기 위해 시간을 내셨고, 또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드셨으며, 나병 환자와 소외된 이들에게 성역을 베푸셨다. 그분은 한 명 한 명에게 관심을 쏟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지니신 치유자의 의술을 배우려 노력하는 사람들로서, 그분을 따르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데 눈을 뜰 수 있다. 우리는 시간을 할애하여 인사를 하고, 웃음 짓고, 그들의 일상을 물어볼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 고독하고, 우울하고, 병들고, 연약하거나 고통을 겪는 주변 사람들에게 치유의 유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를 수도 있다. 사랑을 보이는 사소한 몸짓도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업을 행하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일에 참여한다면, 커다란 축복이 뒤따를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태복음 25:40) 우리 각자를 치유해 주시고, 사랑 가득한 팔로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더 자주 감싸 주시며, 속죄라는 치유의 유향을 허락해 주신 그분을 위해 우리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치유되도록 돕는 작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 이것은 진정 치유하는 자의 기술이다. ■

글쓴이는 미국 유타주에 산다.

## 주

1. See “Lord, I Would Follow Thee,” *Hymns*, no. 220.
2. “살아 계신 그리스도: 사도들의 간증,” *리아호나*, 2017년 5월호, 앞표지 안쪽.

# 꽃과 재정적 안정

미셸 월

“그들은 위대한 치유자이신 구주께서 저를 고치실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주었어요.”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항상 나를 따라다니며 괴로움을 주었다. 만약 남편에게 무슨 일이라도 일어난다면 내가 재정적으로 가족을 부양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너무나 충격적이고,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놓을 전화를 받은 것이다.

“119에 전화해!” 남편이 괴로워하며 소리쳤다. “나 지금 트랙터 밑에 깔려 있어!”

나는 전화를 해서 도움을 구한 뒤, 자갈길에 늘어선 긴 응급 차량 행렬을 앞질러 남편이 땅을 갈고 있던 미국 아칸소주 피 리지에 있는 우리 땅에 재빠르게 도착했다. 배리는 살아 있었지만, 뒤집어진 트랙터 엔진 밑에 깔려 정말 꼼짝도 못하고 있었다.

구조대원들은 유압식 구조 도구로 트랙터를 들어 올린 다음 배리를 빼냈다. 배리의 다리는 경유에 젖어 있었고, 몇 군데가 부러진 듯 보였다. 배리는 외상



치료 전문 센터로 급히 이송되었다. 배리는 거기서 다리 엑스레이를 찍기 전에 신권 축복을 받았다.

우리는 배리의 다리뼈가 한 곳도 부러진 곳이 없다는 것에 놀랐다. 하지만 한쪽 다리 뒷부분은 경유 때문에 심각한 화상을 입은 상태였다. 또, 충돌 때 생긴 상처로 배리의 신장에는 독소가 퍼져 있었다. 배리는 생명이 위태로웠다.

병원에서 닷새간 애타는 시간을 보낸 후에야 마침내 배리의 독소 수치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수 개월간 봉대 교체, 피부 이식, 수술, 고압 산소 요법 등이 이어졌다. 나중에 몸이 충분히 나아갔다고 느낀 배리는 집에서 판매 사업을 시작했다.

### “아무도 나를 고용하려 하지 않을 거야”

이런 일들을 겪으며 정신이 번쩍 났다. 그후로 몇 년 동안 나는 만약 배리가 죽는다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하면서 지냈다. 나는 자원 봉사를 했고 워크숍에 참가했으며 시간제로 할 수 있는 몇몇 자리에 지원했다. 하지만 취업에 필요한 기술이 없었기에 아무도 나를 고용하려 하지 않았다.

우리는 가축을 키우기 위해 목초지가 있는 농장에 살고 있었다. 나는 생업으로 농사를 짓는 것은 어떻게 조사해 보기 시작했다. 하루는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꽃은 어떻게? 꽃 재배에 관해 조사한 후, 나는 꽃을 재배해 보기로 결정했다. 화훼업자들을 위한 대회에 참가했고,

목초지를 작물을 경작할 땅으로 만들 준비도 했다. 2016년 11월에는 사업을 시작하고 성장시키는 방법을 배우는 자립 지원 서비스 과정에 등록했다.

### 내가 직접 운영하는 꽃집

그 12주 과정은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다. 나는 기본적인 사업 계획과 많은 흥미로운 아이디어가 있었지만, 그걸 체계화하는 능력이 부족했다. 이 과정을 들으면서, 전에는 생각지 못했던 아이디어들이 떠올랐다. 나는 그것을 하나하나 실행에 옮겼다. 사업 첫 해에 꽃을 키우고 파는 일을 하는 동안 자립 과정에서 배웠던 내용과 원리들이 유용하게 쓰였다.

- 나는 금리가 낮은 사업 자금 대출을 찾았다.
- 나는 판매 경로를 농산물 직판장과 꽃집으로 확장했다.
- 나는 서비스 확장의 일환으로 농장에 몇 가지 행사를 계획했다.

꽃 농사를 지은 첫해가 지나고 2017년 후반에 나는 꽃가게와 거래하는 것은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일임을 깨달았다. 그러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직접 꽃집을 운영하면 어떨까?’ 마침 근처에 문을 닫은 지 꽤 되어 흥물스러워진 꽃가게 건물이 하나 있었다. 남편과 나는 그 꽃집을 사서 수리를 하고, 미술 작품과 지역 공예품도

함께 파는 꽃집을 개업했다. 또, 식물 대여와 인테리어 식물 설계 사업도 함께 시작했다.

나는 우리 꽃집에서도 꽃을 팔고, 카페와 양품점, 지역 공항의 매점에서도 꽃을 판다. 매일 나는 나에게 필요한 것을 수확한다.

### 주님의 관심

나는 주님께서 내 사업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간증이 있다. 주님께서 내게 나뿐만 아니라 근무시간대가 유연한 시간제 일을 구하는 여성들, 그리고 학교에 다니며 일을 하는 학생들의 재정적인 안정을 창출하도록 도와주셨다. 우리 딸 중 한 아이는 꽃 농장을 관리하고, 아들 중 두 명은 온실 짓는 일을 돕는 등 농장 일을 도맡는다. 배리는 저녁과 주말에 무거운 것을 옮기는 일을 도와준다.

우리는 모두 서로를 지원하고 함께 일한다. 이 사업은 연관된 모든 사람에게 축복이 되었다. 나는 계속 바쁘지만 여전히 가족, 교회 부름, 성역 봉사, 자원 봉사를 위해 시간을 낼 수 있다.

씨앗이나 알뿌리를 심는 것에서부터 고객에게 꽃이 전달되기까지 그 전 과정에서 일하는 것은 아주 큰 성취감을 준다. 나는 주님께서 내 능력을 키워 주시고 내 힘으로 할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해 주셨음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

글쓴이는 미국 아칸소주에 산다.

## 마르다와 마리아

카밀 프랑크 올슨

브리검 영 대학교, 고대 경전 명예교수

어떤 방식으로 봉사하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온  
마음과 생각을 다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이다.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이 당시 구주의 정체를 두고 혼란스러워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요한복음 7:17) 단순히 교리를 배우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배우고 그분의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신앙을 실천해야만 한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구주를 섬기는 방법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

이 설교를 한 직후에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 몇몇은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 베다니에 있는 마르다의 집으로 갔다. 마르다는 친절한 주인으로서 손님에게 음식과 쉼터를 제공하며 대접하는 주요한 책임을 맡은 반면, 동생인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누가복음 10:38~42 참조) 주님을 섬기는 일에서 두 자매가 보인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제자 됨을 나타내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존중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또한 이 이야기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여성들도 봉사 방법과 제자 됨을 보여 줄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그분의 관점을 드러낸다.

### 베푸는 봉사

누가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소개하기 직전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기록한다. 이 이야기에서 구주께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먹이고 쉴 자리를 마련해 주고 돌보는 등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가르치셨다.(누가복음 10:30~37 참조) 마르다가 “일[을] 많”이 하려고 한 것은(누가복음 10:40) 그녀가 신앙을 실천하는 방식에 그 원리를 나름대로 해석하여 받아들였음을 나타낸다.

큰 자는 다른 이들에게 성역을 베푸는 사람이라는 그분의 가르침을 몸소 보이시며(마태복음 20:26~28; 누가복음 22:26~27 참조), 예수님은 당신의 삶을 봉사에 바치셨다. 마르다는 그분을 섬기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이에 응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봉사와 배움을 통해 참된 신앙과 제자 됨의 좋은 본보기가 되는 두 여성을 보여 준다. 마르다가 봉사를 통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보여 주었듯이 우리도 구주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그분의

복음을 배우고 따르려는 우리의 의지에 중심을 둔 봉사를 주변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우리는 봉사할 때, 봉사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서로 다른 방법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마르다가 “마음이 분주하”게 되었을 때(누가복음 10:40), 그녀가 보인 반응은 논쟁을 불러왔고 구주의 방문으로 화목해진 분위기를 망칠 뻔했다.

마르다는 손님을 환대했고 책임감도 있었지만, 또한 자신의 분주함에 몰입하여 마음이 괴로웠다. 그녀는 예수님께 이렇게 불평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누가복음 10:40) 마르다의 항의는 그녀가 자기 혼자만 봉사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음을 암시한다. 그녀는 그 시간에 마리아와 구주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다른 봉사의 방식을 알아보지 못했다. 마르다는 배움의 원리를 보여 주었지만, 영을 받아들이는 데 방해가 되는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오늘날 우리는 타인에 대한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행위와 태도로 보여 줄 수 있다.



우리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봉사하기 위해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범을 따를 수도 있고 영의 인도를 구할 수도 있다.

### 베움을 받는 봉사

경고의 음성을 더하시며, 예수님은 봉사하려는 마르다의 노력과 그에 수반된 좌절감을 다음과 같이 인정해 주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누가복음 10:41) 이 말씀은 마르다가 환대를 보이려고 택한 방법을 구주께서 낮게 평가하신 것이 아니라 마리아에게도 경청과 배움을 통해 봉사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신다는 의미였다. 마리아의 행동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봉사의 방식과는 상관없이,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보여 준다.

마리아는 구주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분이 자신에게 봉사하실 수 있게 했다.

마리아의 모범은 우리가 영으로 배우고 성장하기 위해 구주의 발치에 앉음으로써 구주에 대한 사랑을 보일 수 있음을 설명해 준다.

###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르다의 갈등에 대한 답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는(누가복음 10:42)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었다. 이 말에는 단순함이 가져오는 심오한 힘이 함축되어 있으나, *단순하다*는 말은 우리 각자에게 다른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족하다”의 기준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동지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가 택하는 봉사 방식에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온 마음과 생각을 다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이다.

어떤 때는 “마르다의 방식”으로 봉사하는 것이 가장 좋을 때도 있는 반면, 또 어떤 때는 “마리아의 반응”이 적절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 또, 그 두 가지 범주에 다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우리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봉사하기 위해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범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영의 인도를 구할 수도 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하여 봉사하든 우리의 태도를 살피면서, 그분을 따르겠다는 우리의 확신이 가장 중요함을 기억하자. 우리가 항상 구주의 발치에 앉아 있기를 바란다. ■



딘 엠 데이비스 감독  
감리 감독단 제1보좌

# 제자의 길에서 신성한 인도를 받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우리 구주의 참된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렸을 때 제가 답을 찾고 싶어 했던 두 가지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면,  
주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당신의 의로운 목적을  
위해 우리를 쓰실 것인가? 둘째, 우리가 구주를 따르고 제자의  
길을 걷기를 선택한다면, 주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위해 우리를  
쓰실 때 우리를 굶어살피시고, 인도하시며, 축복하시고, 기쁨과  
성취의 영으로 우리를 채우시겠는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마음을 구주께  
드리고 주님께서 명하신 길을 신앙과 공홀 가운데 걸으려고  
노력한다면, 여러분이 지금은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쓰시리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특별한  
게 없는 사람인걸요. 어떤 면으로 보나 평범하지요. 딱히  
똑똑하지도 않고, 언변도 뛰어나지 않고, 옷을 잘 입는  
것도 아니며, 심지어는 품행도 썩 방정하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겠어요?”

태초 이래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늘 평범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셨고 당신의 목적을 위해 그들을 쓰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대 고린도인들에게 쓴 편지는 오늘날의 여러분에게 쓴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린도전서 1:27~29)

구주께서는 왜 당신의 교회를 지상에 회복할 때가  
되었을 때, 정식 교육을 거의 받지 않은 보잘것없는 소년을  
택하셨을까요?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서 농부인 기드온에게 병사들을 계속  
쳐소로 돌려보내고 겨우 남은 300명의 병사들을 데리고 무수한  
적을 상대하게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사사기 7:1~25 참조)

왜 구주께서는 어부를 선택하여 당신의 수석 사도로  
삼으시고 당신이 가시고 난 후의 교회를 인도하게  
하셨을까요?(마태복음 16:18 참조)

첫째, “[여호와]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사무엘상 16:7)

둘째, 하나님은 가장 보잘것없는 진흙을 가지시고도 걸작을  
만들어 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로마서 8:31)

셋째, 하나님께서는 약한 것을 택하심으로써 누구도 “내  
힘으로 이것을 했다”고 자랑할 수 없게 하십니다.

평범한 어부인 베드로가 소수의 믿는 자들을 데리고 위대한



심화: 켈리 모리스



교회로 인도해 갔을 때, 사람들은 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수천 명의 군대가 300명에게 패배했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한 개척자 소년이 쟁기를 내려놓고, 성경 이래로 가장 영감 어리고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책을 번역했을 때, 사람들은 인간의 지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에 기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힘이 세거나 지적이거나, 언변이 유창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당신께로 마음을 기울이고, 당신을 섬김으로써 또 주변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베풀으로써 당신을 영예롭게 하기를 바라십니다.

### 성령의 성역

여러분께 두 번째로 분명하게 하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이 진리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따른다면, 그분은 여러분이 이해할 수도 없는 방식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시리라는 것입니다.

2006년에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님과 제일회장단은 엘살바도르의 산살바도르에 성전을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구도심의 전체 구역을 비롯해 많은 부동산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에서 저곳으로 차를 몰고 다녔지만,

마땅한 곳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다 우리는 도시의 서부에 있는 개발 중인 지역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뭔가가 느껴져 여러 구역을 두루 걸어 다녔습니다. 그러다 벽으로 둘러싸인 한 땅에 특별히 흥미가 생겼습니다. 제가 주인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그 땅은 팔지 않는다는 대답만 듣고는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선지자께서 산살바도르에 성전이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저는 다른 땅을 찾기 위해 다시 갔습니다. 다시 한번 저는 벽이 있는 그 땅에 끌렸고, 다시 연락을 취했습니다. 주인은 팔지 않는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집으로 다시 돌아왔지만 저는 그곳이 성전이 있어야만 하는 곳이라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주인 가족에게 연락해서 최소한 만나 보기만이라도 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저는 산살바도르로 갔습니다. 친구이자 교회 부동산 부서의 직원인 로버트 폭스와 함께였습니다. 그날 아침,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제 방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차를 몰아 그 주인 가족의 대문을 통과할 때는 거의 성스러운 정원으로 들어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나무와 꽃들이 있었고 바깥의 분주한 소음은 대문을 넘지 못했습니다. 미겔



두에냐스와 그의 동생, 그리고 미겔의 두 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사를 한 뒤 조상 때부터 대대로 살고 있는 크고 넓은 집으로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우리는 교회 회장님이 주신 임무 때문에 왔으며, 회장님은 그곳에 성전을 지어 이 나라와 교회 회원들에게 축복을 주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다른 성전의 사진도 보여 주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대대로 살고 있는 이 집이 바로 성전이 세워질 장소라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번의 거절은 놀랄 일도 아니었습니다만, 노력은 해 보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거의 한 시간 동안 온갖 방법으로 설득했습니다. 완전한 현금 구매, 다른 부동산과 맞교환을 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생각해 낼 수 있는 모든 선택지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심이 확고했으며 모든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준비도 해 갖고, 우리가 아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제 마음은 다급한 기도로 가득 찼습니다. “아버지, 제발 저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혹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침내 우리가 헛걸음을 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떠날 차비를 하기 시작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의 영이 그 방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손에 만져질 것만 같은 확실한 느낌이었습니다. 방에 있는 사람들 모두 그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평생 경험한 것 중 가장 강력한 영적 경험으로 손꼽히는 순간이었습니다.

미겔 두에냐스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겔은 교회 회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생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집을 팔 수 없다면, 우리가 가진 부동산 중에서 길 건너편에 있는 제일 좋은 것을 팔면 어떨까?”

그의 동생도 긍정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땅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조상 대대로 살고 있는 그 집에서 큰 도로를 가로질러 있는 수백 헥타르의 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땅은 중심부가 약간 돌출되어 있어서 그 길을 지나다니는 차는 모두 성전을 볼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성전을 위해 그 땅을 제안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주님의 축복이 건축 과정에 함께했습니다. 2011년 8월 21일, 당시 제일회장단 제1보좌였던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님은 주님께 봉사할 곳으로 그 성전을 헌납하셨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성전이 산살바도르의 언덕을 빛내고 있는 것은 폭스 형제나 제가 한 언행 때문이 아님을 간증합니다. 그 성전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미친 강력한 성역 덕분에 오늘날 거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님께서 성전 부지를 마련하시는 일에도 그렇게 당신의 영을 보내실 정도로 관심을 기울이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도 당신의 영을 당연히 보내실 것이라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여러분은 토지 한 구획과는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귀중합니다. 여러분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우주의 하나님인 분의 자녀들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마음에 두고 계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방식으로 여러분을 쓰시고 축복하시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경전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으며, 우리의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면 그가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리라”라고 말합니다.(잠언 3:5~6)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베냐민 왕이 완벽하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의 복되고 행복한 상태를 깊이 생각해 보기를 바라고자 하노니 이는 보라, 그들은 현세적이거나 영적인 모든 일에 복됨이요, 만일 그들이 끝까지 충실히 견디면 하늘에 영접되나니, 그로 인해 하나님과 함께 결코 끝이 없는 행복한 상태에 거하게 되리라.”(모사이야서 2:41)

저는 목소리를 높여 이 진리를 찬양하고 간증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제 삶과 다른 많은 사람의 삶에서 거듭 성취되는 모습을 보았음을 간증합니다.

여러분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마음을 기울인다면,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온전히 사랑하고 따르기 위해 노력한다면, 공허와 친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변 사람들의 짐을 나누어 지고 그들의 손을 들어 올린다면, 사랑하는 우리 구주의 참된 제자가 되려고 구한다면,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리라고 약속합니다. 그분은 당신의 숭고한 목적을 위해 여러분을 쓰실 것이며, 여러분이 상상도 하지 못할 방식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

2015년 11월 3일 브리검 영 대학교의 영적 모임에서 전한 “God Will Use You, God Will Bless You”에서 발췌함.

## 달라진 마음, 달라진 친구들

**나**는 십 대 시절에 아주 오랜 반항기를 보냈다. 나는 내가 크면서 배웠던 것들과 정반대로 행동했다. 나는 열세 살 때부터 술을 마셨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즈음에는 매주 음주를 했다.

부모님과 충돌하지 않으려고 가끔은 교회에 참석했으나 성찬식 내내 잠을 자고는 주일학교가 시작하기 전에 해변으로 가 버렸다. 그런 내 행동을 부모님은 마뜩잖게 여기셨다는 말로는 사실 표현이 부족할 것이다. 그러나 두 분은 내가 복음대로 살도록 계속 나를 격려하시며 선택의지를 존중해 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교회에서 활동적인 회원이 될 마음이 없었다. 당연히 내가 생각하는 미래에는 선교 사업이 빠져 있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나는 인근의 전문대학에 다니며 반항적인 생활을 계속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늦은 밤 소파에 누워 미래를 생각해 보았다.

나는 누구와 결혼하게 될까? 내가 주님께 등을 돌리면 다시 돌아갈 길을 찾을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결정이라는 건 알았지만, 달라지고자 하는 마음은 들지 않았다.

얼마 후에 나는 친구 집에서 하는 파티에 갔다. 우리는 뒷마당에 모닥불을 피워 놓고 술을 마시며 놀았다. 친한 친구들과 한동안 농담을 주고받다가 잠시 그곳을 빠져나와서 눈을 감았다.

다시 눈을 뜨자,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어리석게 행동하는 친구들을 보며, 다시는 그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들었다. 나는 그 자리를 떴고, 다시는 술을 마시거나 그런 종류의 파티에 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내가 어울리는 친구들을 바꾸어야 한다는 의미였고, 이걸 쉽지 않은 일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했다.

그와 같은 결정들은 내 삶에 축복을 안겨 주었다. 나는 결국 선교 사업을 나갔고, 많은 부름을 수행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훌륭한 여성과 성전에서 결혼했다는 것이다. 그것은 내 삶에서 가장 위대한 축복으로 이어졌다.

나는 최근에 엘마와 모사이야 아들들의 개종과(모사이야 27장) 그들이 마음에 큰 변화를 경험한 이야기를 읽었다.(엘마서 5:12~14)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엘마의 아버지가 드린 충실한 기도도 포함되어 있다. 우리 부모님 생각이 났다. 그리고 문득, 예전 그 파티에서 내가 정신이 번쩍 들었던 것은 부모님의 기도가 가져온 직접적인 결과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30년도 더 흐른 지금에서야 그걸 깨달은 것이다.

이제 나는 방황하는 한 아이의 부모로서 엘마의 부친과 나의 부모님과 비슷한 처지에 있다. 하지만 나는 경전을 나에게 빚대어 보며, 언젠가 나의 자녀 역시 마음의 변화를 경험할 것이라는 소망과 신앙을 갖고 있다. ■  
익명,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느 파티에서 어리석게 행동하는 친구들을 보자, 다시는 그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지가 않았다.



# 선교사가 되겠다는 꿈이 마침내 실현됨

**나**는 오랫동안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고 싶은 꿈이 있었다. 그러나 대학을 졸업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우리 가족에게 내가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지를 실감하게 되었다. 아버지는 건강이 좋지 않았고, 우리 가족은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했다. 네 자녀 중 맏이인 나는 집에 남아 가족을 도와야 한다는 마음이 들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가 괜찮은 직장에 다니도록 축복해 주셨다. 보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그럭저럭 살기엔 충분했다.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겠냐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나는 그러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내가 그 말을 할 때마다 어머니는 아주 흐뭇해 하시면서도 동시에 슬픔이 섞인 눈으로 나를 보시곤 했다. 내가 가도 되냐고 물으면 그러라고 하시겠지만, 속으로는 가족의 수입이 줄어들게 될 것을 걱정하실 게 뻔했다.

몇 년 후, 나는 한 합당한 신권 소유자에게서 성전에서 결혼하자는 청혼을 받았다. 나는 승낙했고, 우리는 결혼하여 세 자녀를 낳는 축복을 받았다. 우리는 딸 둘과 아들 하나를 두었다. 가장 큰 기쁨을 느꼈을 때는 우리 아들이 선교 사업을 떠났을 때였다. 위안과 평화의 영이 우리



**선**교 임지에서 보내 준 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내 마음은 선교사의 영으로 가득 찼다. 나는 선교 사업 기회를 얻기 위해 기도했고,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내라는 영의 느낌을 받았다.

집에 가득했다. 선교사 봉사를 꿈꿨던 나의 소망이 일부만 이루어진 듯했다. 큰딸이 선교사로 봉사하고 싶다고 했을 때도 정말 기뻐했다. 딸은 선교 임지에서 매주 선교 사업 이야기를 보내 주었다. 나는 딸의 간증으로 고무되었고, 선교사의 영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웠다. 나는 매일 선교 사업을 할 기회를 얻기 위해 기도했다.

어느 날, 나는 영감을 받았고, 한 친구에게 선교사들을 만나 볼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을 소셜 미디어에서 개인 메시지로 보냈다. 그 친구는 “좋아!” 하고 답했다. 나는 LDS.org에서 온라인 소개서를 작성했다. 곧 선교사들이 그 친구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석 달 후, 친구는 우리 교회에 들어왔다. 몇 달 후에는 그 친구의 자녀들이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에 들어왔다. 영의 인도에 따라 나는 다른 친구들에게도 선교사의 이야기를 들어 보도록 권유했다. 딸이 귀환했을 때, 나 역시 18개월의 선교사 봉사를 마친 것처럼 느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내 마음의 소망을 아시며, 내 가족과 나에게 무엇이 최선인지를 아셨다. 오랫동안 내 마음속에 있던 선교 사업의 꿈을 이루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

진 대니얼 다로이, 캐나다 온타리오



## 성전에 가기까지 걸린 30년의 여정

**동** 생이 스위스로 떠나기 전, 영은 그가 이 여행을 통해 구주 및 그분의 교회와 가까워지게 될 거라고 내 마음에 속삭여 주었다.

**내** 가 침례를 받고 나서 몇 달 뒤에 내 남동생 오스왈도는 다른 교회로 가 그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 나는 내가 아는 진리를 동생도 알았으면 했다. 무엇보다도 동생이 선지자들의 말씀에 친숙해지기를 바랐다.

나는 매달 리아호나 잡지를 받을 때마다 오스왈도와 함께 읽었다. 나는 잡지에 나오는 일부 주제가 동생이 다니는 교회 모임을 준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말해 주었다. 동생이 내 제안을 받아들였을 때는 정말 마음이 뿌듯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도 동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나는 크게 상심했다.

어느 날 아침, 오스왈도는 가족들에게 고향인 에콰도르를 떠나 스위스로 떠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생이 떠나던 날, 나는 오스왈도에게 축복을 주었다. 오스왈도가 이 여행을 통해 구주와 그분의 교회에 가까워지게 될 거라는 영의 속삭임을 느꼈다. 나는 가슴이 복받쳤다.

스위스에서 오스왈도는 선교사들을 만났고, 마침내 선교사들을 집으로 초대하기에 이르렀다. 시간이 흐르면서 동생은 선교사들과 돈독한 우정을 쌓았다. 그러나 오스왈도는 혹여나

선교사들이 침례 이야기를 꺼낸다면 그 만남을 관둘 거라고 내게 말했다. 그런 동생이 침례를 받겠다는 이메일을 보냈을 때, 내가 얼마나 놀라고 기뻐했는지 상상이 되는가? 나는 1981년에 교회에 가입했고, 오스왈도는 20년 후인 2001년 5월에 침례를 받았다. 동생은 2002년 7월에 자신의 엔다우먼트를 받았고, 2003년 2월에 아내와 인봉되었다.

에콰도르로 돌아왔을 때, 오스왈도는 성찬식에서 간증을 나누었다. 동생은 눈물을 머금은 채 이렇게 말했다. “형이 저에게 선지자의 말씀을 알려 주었습니다. 그 말씀들은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 모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영감을 주었고, 그 덕분에 많은 사람이 감화를 받았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은 제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저는 권능과 권세를 지닌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이 지상에 임하게 되었음을 배웠습니다.”

2011년 2월에, 오스왈도와 나는 에콰도르 과야킬 성전에서 부모님께 인봉되었다. 선지자들의 말씀은 우리 가족에게 영원한 축복을 가져다주었다. ■

프란시스코 더블유 피에로, 페루 리마



## 순교와 나의 간증

**선** 교사들이 조셉 스미스와 몰몬경에 대해 가르쳤을 때 나는 회의적이었다. 맨 처음에는 조셉 스미스가 소위 “선지자”라 불리는 다른 많은 사람처럼 부나 명성을 얻기 위해, 혹은 영웅이 되려고 거짓된 책을 세상에 내놓은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몰몬경을 읽어 볼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선교사들과 친분이 생기고 복음에 대한 그들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전하는 이야기에 대한 호기심도 커졌다.

선교사들이 알려 준 몰몬경 구절에서 나는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과 진정한 의도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몰몬경이 참된지 간구해 보라는 모로나이의 권유를 발견했다.(모로나이서 10:4~5 참조)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책이 거짓임을 아는 사람이 감히 진정한 의도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몰몬경이

참된지 간구해 보라는 요구를 할 수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선교사들이 조셉 스미스와 그의 형 하이럼이 그들의 간증 때문에 순교당했다는 이야기를 해 주었다. 불현듯 거짓이라고 믿는 것을 위해 그들이 목숨을 내놓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순간, 타는 듯한 뜨거운 느낌이 나를 감쌌다. 그 느낌은 조셉 스미스가 참된 선지자였음을 내 마음에 확인시켜 주는 성신의 증거였다. 증거를 받은 나는 침례를 받고 확인을 받았다.

시간이 흐른 뒤, 십이사도 정원회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님의 다음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25년 전의 그 경험을 떠올렸다. 홀런드 장로님은 순교당하는 이 절박한 순간, 조셉과 하이럼이 거짓임을 알고 있는 책을 위해 과연 자신의 목숨과 명예, 영원한 구원을 거는 불경을 하나님 앞에 저질렀겠느냐고 물으시며,

“물론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시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몰몬경의 신성한 기원과 영원한 진실성을 부인하기보다는 기꺼이 죽고자 했습니다.”<sup>1</sup>

홀런드 장로님의 말씀은 이치에 맞을 뿐 아니라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몰몬경의 권능에 대한 나의 간증을 강화해 주었다.

나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감사하다. 그는 몰몬경을 세상에 내놓았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바쳤다. 나는 몰몬경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알게 되었다. ■

선주 김 무어, 미국 메릴랜드주

주

1. 제프리 알 홀런드, “영혼의 안전”, 리아호나, 2009년 11월호, 89쪽.

**조**셉 스미스와 그의 형 하이럼이 순교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영은 내게 그들이 거짓이라고 믿는 것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지는 않았을 것임을 확인해 주었다.



#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됨을 믿는다

**산** 상수훈 당시 예수께서는 온전하라는 어려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마태복음 5:48 참조) 실수는 다반사로 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도록 기대하시는 걸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올바르게 이해하면, 선지자 모로나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한 의미를 알 수 있다.(모로나이서 10:32~33 참조)

## 온전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리스어로 온전하다는 말은 ‘완성된, 모두 이룬, 완전히 발전된’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영문 마태복음 5:48, 주석 b) 우리 구주께서는 우리가 완성되고, 모두 이루며, 완전히 발전하여, 그분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 주신 덕성과 성품 안에서 온전해질 것을 요구하십니다.”<sup>1</sup>

“구주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온전함은 실수 없는 행위보다 훨씬 높은 것입니다. 아버지께 드린 주님의 중보 기도에 표현된 영원한 기대치, 즉 우리가 온전하여져서 앞으로 영원히 그분들과 함께 살 수 있게 되는 바로 그것입니다.”<sup>2</sup>

“따라서 저는 예수께서 우리의 결점

때문에 그분 말씀의 망치로 우리를 때리기 위해 이 주제에 관한 설교를 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예수께서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누구이시고 어떤 분이며, 영원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찬미로 그 가르침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sup>3</sup> ■

## 주

1. 게릿 더블유 공,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것”, *리아호나*, 2014년 7월호, 45쪽, 번역 수정.
2. 러셀 엠 넬슨, “언젠가는 실현될 온전함”, *성도의 벗*, 1996년 1월호, 87쪽, 번역 수정.
3. 제프리 알 홀런드, “그러므로 너희도 중국에는 온전하라”, *리아호나*, 2017년 11월호, 41쪽, 번역 수정.



“구주께서 값없이 주신 속죄의 사랑을 이해하면, 온전함에 대해 스스로 만든,

부정확하고 비현실적인 기대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게릿 더블유 공 장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것”, *리아호나*, 2014년 7월호, 42쪽.

##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모든 경건하지 아니한 것을 거부하고 … [우리]의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모로나이서 10:32)

실수를 범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갖고 회개한다.

하나님과 맺은 약속인 성약을 지킨다.

평생에 걸쳐 최선을 다해 계명을 지킨다.

“온전하게 되기까지 계속하여 인내”한다.(교리와 성약 67:13)



## 하나님께서 바라시지 않는 것

지금 당장 완벽해진다!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다.

완벽주의 성향 때문에 부담을 느낀다.

쉬지 않고 일만 하면서 끊임없이 바쁘다.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자신에게 비판적이다.

천국으로 가는 길을 스스로 “마련”하려고 한다.



# 도마뱀붙이와 귀뚜라미 이야기: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

낸시 토머스

파충류가 우리 모자 관계에 이렇게 오래도록 영향을 미칠 줄은 정말 몰랐다.

**내** 아들 델린은 파충류를 좋아했다. 나는 아들과는 정반대였다. 아들에게 파충류를 길러도 된다고 허락하긴 했지만, 나는 무조건 그제 진공청소기 호스를 통과할 수 있는 크기여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그건 아들이 학교에 있는 동안 파충류가 우리에서 빠져나올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조치였다. 우리는 개구리에서부터 이구아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파충류를 두루 살펴본 뒤 마침내 짙은 색 표범 도마뱀붙이 두 마리를 길러 보기로 했다. 우리는 그 녀석들에게 퍼즈와 다이앤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

델린의 새 친구들이 우리 가족이 된 것은 델린이 일곱 살 때 일이다. 도마뱀붙이를 기르면서 미처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귀뚜라미를, 그것도 살아 있는 귀뚜라미를 일주일에 한 번씩 먹이로 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델린과 나는 여러 해 동안 “귀뚜라미 사냥”을 다녔다. 대개 늦은 밤 애완동물 가게가 문을 닫기 바로 전에 사러 가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다이앤은 삼 년밖에 살지 못했지만, 퍼즈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도록 살았다.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을 무렵,

델린은 자신이 속한 대중 연설반을 대표하여 시범 발표를 하도록 지명을 받았다. 델린이 남편과 나에게 어떤 주제가 좋겠는지 물었을 때, 우리는 표범 도마뱀붙이 이야기를 해 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델린이 잘 아는 주제였을 뿐만 아니라 퍼즈를 데려가서 보여 줄 수도 있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러자 델린은 퍼즈가 이미 무지개다리를 건넜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농담하는 거 아니지? 언제 그랬는데?” 나는 그 소식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

퍼즈는 일주일 전에 죽었다고 했다.

“퍼즈는 제 방에 있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냄새가 나진 않을 거예요. 제가 봉지로 겹겹이 싸 두었거든요.”

눈이 휘둥그레진 우리를 본 델린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다. “실험 중이에요. 사체가 부패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어서요.”

사실 델린의 실험은 부패 과정을 지켜보는 것 이상이었다. 델린은 퍼즈를 2주간 냉동고에 넣어 부패를 지연시켰다가 다시 꺼내 해동한 후 좀 더 부패시키곤 했다. 이 실험은 여름 내내 계속되었다. 델린이 집을 떠나 대학에 갔을 때, 퍼즈는 냉동고 뒤 구석에 놓여 있었다.

일 년 후, 델린은 선교 사업을 나가 있었고, 나는 냉동고를 정리하던 중 뒤쪽 구석에서 여전히 봉지에 싸여 있는 퍼즈를 발견했다. 마침 델린에게 소포를 보내려던 참이었으므로, 이 자그마한 실험 프로젝트를 보내 주면 재미있겠다 생각이 들었다. 나는 퍼즈를 조심스레 상자에 넣어 짐고 하얀 물방울무늬가 있는 예쁜 포장지로 싸 뒤 델린에게 보내는 소포 안에 고이 담았다. 그리고 이런 쪽지를 써서 넣었다. “소포 안에 깜짝 선물이 있단다.”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델린의 반응을 기다렸다.

마침내 델린이 답장을 보내왔다. “도마뱀붙이를 받아 보고 난 후로 계속 그 녀석에 관해 생각하게 되었어요. 도마뱀붙이 자체에 관한 생각보다는 매주 귀뚜라미를 사고 다른 볼일을 보러 다니면서 차 안에서 엄마의 생각과 이야기와 간증을 들었던 그 시간이 많이 생각났죠. 그 덕분에 엄마와 같이 밖에 나가고 대화를 해야만 했으니까요.(제가 말을 많이 한 건 아니어도 귀담아 듣긴 했어요.)”

귀뚜라미를 사러 가는 일. 누가 알았겠는가?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영향을 미칠 적절한 시기를 때면 계획할 수는 없다. 이러한 일은 많은 경우에





즉흥적으로 이루어진다. 밤에 아이들의 침대 밑에서 잘 자라는 인사를 건넬 때나 스키 리프트를 함께 탈 때, 아니면 차를 타고 볼일을 보러 갈 때가 될 수도 있다. 우리는 자녀와 함께하기 위해 시간을 내야 한다.

구주께서는 아이들을 위해 시간을 내시는 최고의 모범을 보여 주셨다. 온종일 니파이인들을 가르치신 후, 그리스도께서는 어린 자들을 데려오라고 명하셨다. 그분은 어린아이들 사이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기도를 마치신 그분은 눈물을 흘리셨다. 그런 후 “그들의

어린아이들을 하나씩 안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며, 그들을 위하여 아버지께 기도하”셨다.(제3니파이 17:21)

그 아이들은 예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다. 그분은 기꺼이 그들을 위해 시간을 내셨다. 그들에게 귀 기울이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으며, 그들을 축복하셨다. 이를 직접 목격한 이들은 큰 권능을 가슴 가득 느꼈으며, 이는 경전에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예수께서 아버지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고 들은 바 것처럼 크고 기이한 일을 이전에 결코

눈으로 본 적이 없으며, 귀로도 들은 일이 없느니라.”(제3니파이 17:16)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이들에게 미치신 영향력은 수 세대에 걸쳐 지속되었다. 단지 함께 귀뚜라미를 사러 나가는 일일지라도, 자녀에게 우리의 관심과 시간을 쏟을 때, 우리가 미치는 영향력 또한 수 세대에 걸쳐 지속될 수 있기를 바란다. ■

글쓴이는 미국 메인주에 산다.

# 부모 중 한쪽 또는 양쪽 모두 교회에 참석하지 않을 때

카르멜 뉴얼

**러**셀 엠 벨슨 회장은 존경하는 부모님이 계시는 사랑 많은 가정에서 성장했다. 하지만 어릴 적에 그도 부모님 없이 교회에 다녔다. 그는 성전에서 부모님께 인봉되기를 소망했다! 그러나 어느 자녀도 성약의 길을 홀로 걸을 필요는 없다. 가정에서 복음과 관련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은 부모의 빈자리를 느끼겠지만, 가족과 와드 회원들의 사랑과 관심이 그 자리를 대신 채워 줄 수 있다. 궁극적으로 가정과 교회에서 복음에 대한 훌륭한 가르침을 받고 좋은 경험을 한다면,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가정과 교회에서 경험하는 좋은 것에 대해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배우자 없이 교회에 참석하는 부모를 위한 제언

- 복음대로 생활할 때 받은 축복을 이야기한다.** 복음에 따라 생활하면 평안을 얻고 짐의 무게가 가벼워질 수 있음을 자녀가 깨닫도록 돕는다. 여러분이 교회에 다니는 것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해 주되, 교회에 오지 않는 배우자를 비방하지 않는다. 침례 성약을 지키면 어떻게 위안과 인도를 받게 되는지에 대해 여러분이 느끼는 바를 이야기해 준다.
- 긍정적인 태도를 기른다.** 자녀가 자기 가족의 장점을 볼 수 있게 도와준다. 또한 교회의 교사, 지도자 및 회원들의 장점을 볼 수 있게 도와준다. 자녀가

- 교회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함께 이야기한다. 남이 보이는 약점이나 무심코 뱉은 말에 연연하지 않는다. 그 대신,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기꺼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배우려는 태도를 보인다.
-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한다.** 자녀가 두려움, 외로움, 실망, 분노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인식하도록 돕는다. 그런 다음, 그림을 그리거나 놀이 또는 대화를 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도록 도와줄 수 있다.

-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구한다.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해 주면 영적인 느낌을 더 잘 받아들이고 교회에서 더욱 훌륭한 경험을 할 수 있다.
- 필요할 때 도움을 구한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누군가 도움을 주겠다고 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때로 교회 지도자와 와드 회원들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도움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이야기하기 전에 나서서 도와주는 것을 주저할 수도 있다. 자녀에게 축복이 필요하다면,

누가 도움을 줄 수 있겠는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해 본 후 도움을 청한다. 또, 여러분이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도 생각해 본다.

### 모든 성인을 위한 제언

1. 부모 중 한쪽 또는 양쪽 모두 교회에 참석하지 않는 아이들을 파악하고 사랑을 보인다. 그들의 이름을 익히고 온화하고 친절하게 인사한다. 그들이 처한 상황을 판단하지 말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부모에 관해 묻지 않는다. 교회 회원들의 진심 어린 사랑을 느끼면, 아이들은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배우고 영을 느낄 것이다.
2. 특별한 도움이 필요하지는 않은지 주의를 기울인다. 부모 중 한쪽 또는 양쪽 모두 교회에 참석하지 않는 아이들에게 특정한 가르침이나 활동이 어떻게 상처가 될 수 있을지 의식한다. 신권 축복에 대해 가르칠 때, 모든 사람이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친다. 활동에 부모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비회원을 포함해] 모든 부모를 초대한다. 어버이날과 같은 특별한 날에 관해 민감하게 느낄지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주의를 기울인다.
3. 아이들이 자신의 가족을 사랑하고 강화하도록 돕는다. 가족은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것임을 가르친다.<sup>2</sup> 자신의 가족이 지닌 장점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격려한다. 가족 역사 사업에 참여하면, 아이들은 자신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자신의 가족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가족 역사 사업을 행할 때, “[그들의] 가족은 더욱 가까워지며, 더 큰 기쁨”을 얻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sup>3</sup>

4. 참된 교리를 가르친다. 선택의지는 구원의 계획에서 핵심 교리이며, 자녀는 부모의 선택과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모세서 6:54 참조) 부모의 문제는 자녀의 잘못이 아닐 뿐더러 문제를 바로잡는 것 역시 자녀의 책임이 아니다. 이를 이해하면, 아이들이 자신이 바꿀 수 없는 상황에 관한 염려를 덜고 가족에게 매일 주어지는 많은 축복에 감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제일회장단 제2보좌인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은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가족을 모두 모아 축복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분의 계획은 각 자녀에게 그러한 초대를 받아들이거나 거절할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이 계획의 중심에 가족이 있습니다.”<sup>4</sup> ■

글쓴이는 미국 유타주에 산다.

### 주

1. 러셀 엠 넬슨, “교회를 위한 계시와 우리 삶을 위한 계시”, *리아호나*, 2018년 5월호, 93~96쪽 참조.
2.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17년 5월호, 145쪽 참조.
3. 쿠엔틴 엘 쿡, “가족 역사 사업의 기쁨”, *리아호나*, 2016년 2월호, 27쪽.
4. 헨리 비 아이어링, “하나님 가족의 집합”, *리아호나*, 2017년 5월호, 20쪽.

## 어린이들을 위하여

친구들 이야기:

- 넬슨 회장의 어린 시절 이야기: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2019년 6월호, 친2쪽)
- “새로운 장”(2019년 6월호, 친4쪽)
- “스티븐의 미래 아버지의 날”(리아호나, 2015년 6월호, 72쪽)

## 십 대를 위하여

리아호나 이야기:

- “인생은 마라톤이다”(2019년 4월호, 54쪽)



## 완벽한 계획

**여**러분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경험을 언제 마지막으로 해 보았는가? 지난주? 나도 그랬다. 우리의 계획이 아무리 완벽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인생의 우여곡절**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것 같다. 나는 한 번도 두 자녀를 출산하는 사이에 네 번이나 유산을 하리라고 계획한 적이 없지만, 그 일은 일어났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세운 계획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전개되어 우리를 놀라게 할 때, 혹은 계획 자체가 와해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번 호에서는 다양한 환경에 처한 청년 성인들이 가족 계획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을 때 그들이 찾은 응답을 나눈다.

유산은 나와 우리 남편의 앞길을 가로막으며 큰 슬픔을 안겨 주었다.(44쪽 참조) 캐서린과 그녀의 남편의 경우 사회의 여론 사이에서 주님의 목소리를 찾으려는 시도가 그들의 발전에 방해가 되었다.(48쪽 참조)

추가로 나오는 온라인 전용 기사에서 크리스티나는 어머니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망설임에 대해 이야기한다. 브라이언은 군 발령이 자신과 아내의 가족

계획을 거의 망쳐 놓았던 일을 자세히 들려준다. 젊은 독신 성인인 케이티는 부모로서 우리의 정체성이 지닌 영원한 본질에 대한 통찰을 들려준다.

자녀가 태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든, 아니면 원래 계획한 것보다 더 많은 자녀가 있든, 혹은 결혼을 기다리고 있든 간에 한 가지는 확실하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계시며 우리의 뜻을 그분의 뜻에 맞추려 할 때 항상 우리를 개인적으로 한 명 한 명 인도해 주시고 지탱해 주신다.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는 이 세상에 자녀를 데리고 오고자 열망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행복의 계획을 더 심오하게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가족을 키우는 여정의 어떤 단계에 있든, 이 이야기들을 읽는 동안 성신이 여러분이 가는 길에 도움이 될 통찰과 해답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읽는 동안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마리안 본 브랏트

*Marianne von Bracht*

최고의 조언 ...

청년 성인들이 자녀를 갖는 것에 관해 자신이 받은 가장 훌륭한 조언을 이야기한다.

“우리가 신혼일 때, 한 훌륭한 교사님이 결혼이라는 것은 자신과 배우자, 그리고 주님 사이의 결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그분은 종종 결혼을 남편과 아내 사이의 결정으로만 여기며 주님을 제외시키는 사람들이 있다고 경고하셨죠. 무언가를 결정할 때 주님과 함께함으로써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보니 콜닉, 미국 아이다호주

“자녀를 갖는 ‘완벽한 시간’을 기다리지 마세요. 여러분은 영원히 기다리게 될 거예요.”

—애니 홀, 오스트레일리아 퀸즐랜드

“사람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은 여러분과 배우자와 하나님 아버지 사이의 일입니다.”

—쿠라니 월터스, 뉴질랜드 오클랜드

역경을 극복하는 것과 관련하여 여러분이 받은 가장 훌륭한 조언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2019년 6월 30일까지 [liahona.lds.org](http://liahona.lds.org)로 보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은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특정 주제에 관한 기사를 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십시오. 여러분의 글이나 피드백을 [liahona.lds.org](http://liahona.lds.org)로 제출해 주십시오.

청년 성인 저자들 소개

**마리안 본 브랏트**는 가족과 보내는 시간, 음악, 햇빛을 좋아한다. 해가 늘 밝게 비치지는 않는 미국 미시간주 토박이인 그녀는 아무리 먹구름이 끼더라도 그리스도의 빛이 어떤 날이든 우리를 밝혀 줄 수 있음을 안다.



**캐서린 라미레스 데 피네다**는 니카라과 마나과 출신이고 18세 때 교회에 들어왔다.

그녀는 외국어로서 영어를 가르치는 방법을 공부했고 초등학교 영어 교사로 일한다. 그녀와 남편은 과테말라시에 있는 과테말라 성전에서 인봉받았고 아름다운 세 자녀를 두었다.



**케이티 수 엠블리**는 널리 알려야만 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로 세상이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sharegoodness [선함을 나누는 것]를 목표로 하며 신문방송학과 스페인어를 공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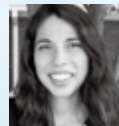
**브라이언 모릴**은 아내와

두 딸과 함께 미국 버지니아주의 해군기지인 놀포크에서 군인으로 일하고 있다. 그는 중위이자 E-2 호크아이 해군 비행 장교이다.



**크리스티나 크로스랜드**는 최근에

브리검 영 대학교를 졸업했다. 그녀는 시간이 나면 책을 읽거나 자신이 꿈꿔 온 서재를 만들기 위해 책을 모으는 일을 한다. 그녀와 남편은 현재 어린 딸과 함께 미국 텍사스주의 새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



이번 호 이야기

**44** 인생의 정지 신호에서 기다림  
마리안 본 브랏트

**48** 자녀를 갖는 축복  
캐서린 라미레스 데 피네다



온라인 전용

부모인 우리의 영원한 정체성  
케이티 수 엠블리

해군의 필요 사항과 우리 가족  
브라이언 모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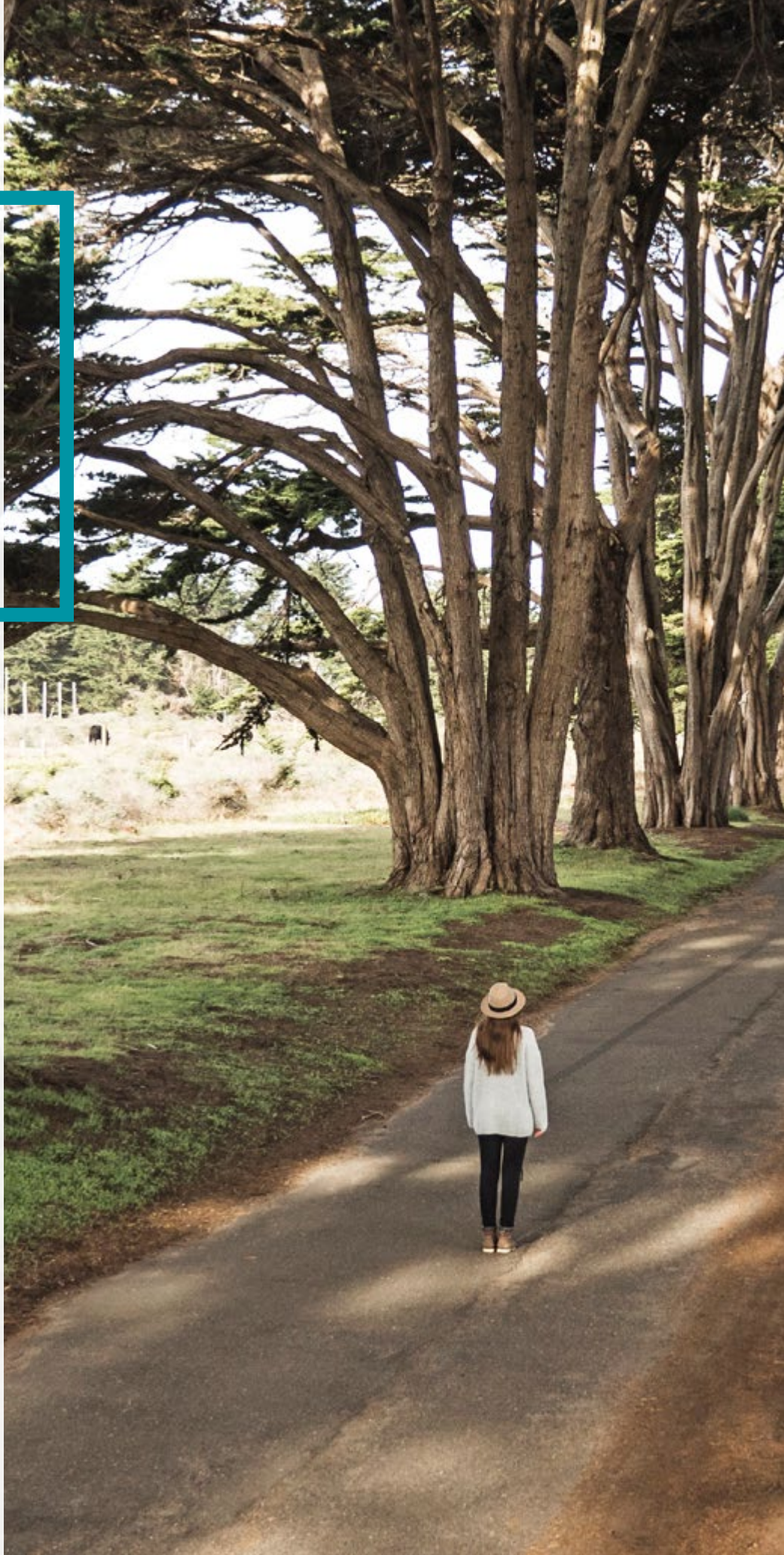
자녀를 갖는 두려움을 극복하며  
크리스티나 크로스랜드

아래에서 이 기사들과 그 외의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본다.

- [liahona.lds.org](http://liahona.lds.org)
- (복음 자료실 앱의 “청년 성인” 섹션에 있는) **청년 성인 주간 메시지**
- [facebook.com/liahona](https://facebook.com/liahona)

# 인생의 정지 신호에서 기다림

잇따른 유산 경험은 내 삶에 내려진 일련의 정지 신호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주님께로 돌아섰을 때, 나는 유산을 할 때마다 평안과 새로운 시각, 그리고 성장이 뒤따랐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마리안 본 브랏트

**아** 전대를 짊어지며 불안한 마음으로 빨간 불을 응시했다. 마침내 신호등이 초록 불로 바뀌었을 때 속도를 내어 달렸지만, 나는 곧 절대로 바뀔 것 같지 않은 또다른 정지 신호 앞에서 기다려야만 했다. 벌써 5분 전에 자매 선교사들과 토론을 시작했어야 했다. 하지만 나는 아직 10분은 더 가야 했다. 내가 좀 더 현명한 엄마였다면 세 살이 다 되어 가는 어린 딸아이가 문간에서 15분간 떼를 부릴 것을 예상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러지 못했다. 물론, 내가 늦는다고 해도 뭐 큰일이 나는 건 아니었다. 하지만 뭔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신호등 몇 개 정도는 나한테 협조해 줘도 되지 않을까? 또 다른 정지 신호 앞에서 기다리고 있자니 가슴속에서 좌절감이 끓어 올라 분노로 바뀌는 것을 느꼈다. “좋은 일을 하려고 하잖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그런데 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거야?”

20개월 전에도 아주 비슷한 상황에서 매우 흡사한 질문을 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때는 정지 신호 앞에서는 느끼지 못한 평화와 평온함이 있는 장소에 있었다.

나는 뉴욕주 팔마이라의 성스러운 숲에 있었다. 내 주변을 둘러싼 갈색 나뭇가지들은 이제 막 새 잎을 틔우고 있었다. 여기서기 흠어져 새로 자라나는 녹색 관목들이 공기 중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만 같았다. 부드러운 미풍이 만드는 바스락 소리와 유모차 끄는 소리, 그리고 내 발소리만이 들려왔다. 자동차 소리도, 길거리의 소음도, 시끄러운 대화 소리도 없었다. 그러나 그런 고요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의문과 불확실함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남편인 랜스와 나는 막바지 초음파 검사와 피검사 결과를 전해 줄 의사의 전화를 72시간 동안이나 힘겹게 기다리는 중이었다. 나는 대답과 위로가 절실했다.

## 위안이 찾아와

*“주께서 그의 영으로 그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위안을 받으라 하시니, 그들이 위안을 받더라.”(엘마서 17:10)*

나는 뉴욕주 팔마이라 성전 밖에서 겨울을 견뎌 낸 꽃들이 피어 있는 화단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내 상황을 생각하다 보니 마음속에 또렷한 질문들이 떠올랐다. ‘만약 이번에도 유산이 된다면, 그건 왜일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나를 감싸고 불어오는 부드러운 봄바람만큼 주님은 내가 갈망하던 위안을 부드럽게 내 마음속에 속삭여 주셨다. 이전 의사의 연락은 굳이 필요가 없었다. 나는 이번에도 유산하리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이 작은 영혼이 완전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보살핌 속에 있다는 깨달음이 일순간 찾아왔다. 나를 가득 채웠던 절망이 한 순간에 용기를 주는 평안으로 바뀌었고, 그 후로 이어진 몇 주와 몇 달을 버틸 힘을 주었다.

## 초록 불을 기다림

*“저는 평안이 필요했을 때 주님께서 여러 방식을 통해 보혜사로 저를*

돌아봐 주신 것에 감사를 느낍니다. 하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위로받는 것만이 아니라 좋은 방향으로 진보하는 것에도 관심이 있으십니다.”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팔마이러에 다녀오고 며칠 후, 대단히 충격적인 유산 경험이 이어졌다. 평온한 느낌이 나를 계속해서 붙들어 주긴 했지만, 나는 유산으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쇠약해졌으며, 이후에 다가올 일들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나는 먼저 검사 결과를 기다렸는데, 흔하지 않은 진단이 나왔다. 나는 포상기태 임신이었다.(자궁 속의 용모가 과다 증식하여 포도송이처럼 되어 작은 낭포를 형성하는 일종의 자궁 종양—웁간이) 그런 후, 포상기태 임신의 결과로 혹시 암이 생기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매주, 격주, 그리고 마지막에는 매달 피검사 결과를 기다려야 했다. 몇 달에 걸친 긴 기다림 속에서도 랜스와 나는 위안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잘 느낄 수 있었다. 포상기태 임신 증상은 지속적인 영향을 남기지는 않았고, 육 개월이 지나자 의사는 다시 임신을 시도해도 좋다고 말했다. 내 삶은 다시 진보의 길로 들어섰다. 신호가 빨간 불에서 초록 불로 바뀐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석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몇 번의 피검사를 한 후 또다시 유산을 했다. 성탄절을 일주일 앞두고 일어난 일이었다. 다시 석 달 뒤, 또 한번 임신 검사의 긍정적인 결과에 희망이 커졌지만, 일주일 후에 다시 유산을 했다. 그렇게 또 다른 정지 신호가 켜진 것이다.

### 시련 속에서 신앙을 갖는 일

“강한 신앙이 있다고 해서 많은 산이 옮겨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 만일 모든 상대되는 것이 축소된다면, 모든 병폐가 제거된다면, 아버지 계획의 주된 목적들은 좌절될 것입니다.”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나는 다시 임신했고, 다가오는 성탄절 즈음이 예정일이었다. 이번 임신은 뭔가 좋은 느낌이 들었다. 초반에 받았던 초음파 검사에서 태아의 심장이 뛰는 것을 보았고 가족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도 알았다. 그러다 하루는 성전에서 엔다우먼트를

받으며 앉아 있는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분명하게 떠올랐다. ‘만약 이번에도 유산이 된다면, 내 신앙이 유지될 수 있을까? 당연히 그러겠지. 하지만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의 뜻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니 분명 또 유산을 하지는 않을 거야.’

그런 긍정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몇 주 후 징후가 보였다. 나는 초음파 검사를 받으러 병원으로 갔고, 너무도 익숙한 고통스러운 그 과정이 다시 시작되었다. 그리고 내 신앙은 기대만큼 잘 유지되지 않았다. 이전에 유산했을 때 나를 지탱해 주었던 대답만으로는 이제 부족했다. 우울의 파도가 밀려왔다. 마음이 찢어지고 공허했으며, 약간의 배신감도 느껴졌다. 남편과 나만이 주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것은 아니었다. 우리 딸도 얼마나 자주 동생을 갖고 싶다고 말했는지 모른다. 딸아이 때문에도 마음이 아팠다. 열렬한 기도로 금방이라도 깨질 듯한 내 영혼을 주님께로 다시 돌렸을 때,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고통과 상황을 아주 잘 아시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뚜렷한 증거를 다시 받았다. 비록 상황은 똑같았지만, 이런 감미롭고 단순한 경험은 내가 느낀 부담을 기적처럼 털어 주었고, 내가 일상 생활을 계속하면서 이 상황에 대처하고 심지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능력까지 주었다. 미래가 어떻게 되든 나는 괜찮을 것이었다.

하지만 유전자 검사가 아무런 답도 없이 몇 달 후에 돌아왔을 때,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이러한 걸림돌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혼란을 느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제쳐 두고 내 뜻을 주님께 맞추려고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순간들을 겪을 때마다 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절규했다. ‘도대체 이것에서 뭘 배워야 하는 거지? 난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고 있어! 그런데 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걸까?’

### 나의 반응을 바꾸면서

“힘든 것은 상수입니다! 누구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변수는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스탠리 지 엘리스 장로

네 번째 유산 후 8개월이 지났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자매 선교사들을 만나러 운전해서 갔던 그날 이후 몇 주가 흘렀을 때였다. 어느 날 집으로







가는 길에 정지 신호를 받고 평화롭게 다음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중 응답이 찾아왔다. 옆에 선 차들과 내 앞에서 가고 있는 차들을 보면서, 나는 영원한 관점으로 내 인생을 보게 되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나를 하늘 본향으로 데려다줄 길 위에 머무는 것이라는 깨달음이 불현듯 찾아왔다. 얼마나 많은 “정지 신호”에 서서 기다렸는가 하는 것은 목적지에 도달하는 데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을 것이었다. 중요한 건 그 정지 신호들에 어떻게 반응했느냐이다.

나는 비유로든 문자 그대로든 인생의 모든 정지 신호를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다. 모든 정지 신호는 시간 낭비보다는 인내심을 키우며 기다림을 통해서만 얻게 되는 안목을 키울 기회가 되었다. 신호등의 모든 빨간 불은 엇갈린 형태로 초록 불과 짝을 지은 채 달려 있는 것처럼, 인생의 모든 정지 신호는 성장을 위한 길을 열어 주기도 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단지 내가 바로 그때 성장하기 위해 계획하고 있던 방식으로 열리지 않았을 뿐이었다. 나는 일이 생각지도 못하게 방향을 바꿀 때마다 실망 속에서 사는 대신 진보할 기회에 기뻐하기 시작했다.

#### 구주께 초점을 맞추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질문은 ‘우리의 신앙을 어디에 두는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지 고통과 고난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거룩한 계획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에 확고히 중심을 두고 있습니까?” —도널드 엘 홀스트롬 장로

첫 유산을 하고 2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난 후, 나는 아름답고 건강한 사내아이를 낳았다. 우리 가족이 그 기쁜 날을 맞을 때까지 보낸 시간 속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모든 고통을 제거하시고자 나를 위해 고통을 겪으신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오히려 주님은 내가 마주한 고난들을 통해 내가 강해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고통을 겪으신 것이었다. 유산의 가슴 찢어지는 순간들과 기다림의 긴 나날들은 아직도 고통스러운 기억이지만, 그것은 이제 내 인생의 보물이 되었다. 그 성스러운 순간들을 겪으면서 나는 구주께서 내 고통을 얼마나 개인적으로 알고 계시는지 이해하게 되었다. 주님은 내 슬픔을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만이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 나를 도우셨다. 인생에서 상대되는 것들은 종종 진보하려는 우리의 계획을 좌절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그 상대되는 것들을 이용하셔서 우리가 더 높은 목적, 곧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안에 거하고자 하는 목적을 향해 나아가게 하신다. ■

글쓴이는 미국 텍사스주에 산다.

#### 주

1. 헨리 비 아이어링,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리아호나*, 2017년 5월호, 17쪽.
2.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주님의 뜻과 그분이 정하신 시기를 받아들이는 것”, *리아호나*, 2016년 8월호, 22쪽.
3. 스탠리 지 엘리스, “우리는 그분을 신뢰합니까? 힘든 것은 좋은 것입니다”, *리아호나*, 2017년 11월호, 113쪽.
4. 도널드 엘 홀스트롬, “기적의 날이 그쳤느냐?”, *리아호나*, 2017년 11월호, 90쪽.



자녀를 더 낳을 거냐는  
질문이 쏟아졌다.  
하지만 우리는  
후손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우리의 신성한  
잠재력을 발전시킬 수  
있다.

# 자녀를 갖는 축복

캐서린 라미레스 데 피네다

“이 번 아이가 마지막이에요?” 다섯 살이 안 된 아이 둘을 두고도 셋째를 임신 중인 나에게 사람들은 자주 그렇게 우리의 자녀 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는 듯했다. “이번 아이가 마지막이에요?” “아이들 터울이 너무 짧지 않나요?” “아이 셋을 데리고 어쩔 거예요?”는 내가 보통으로 듣는 이야기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보통 아이를 한두 명만 낳기 때문에 그들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사람들이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다. 그건 남편과 나는 연애할 때부터 이미 아이를 언제 몇 명까지 낳을 것인지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가족 계획은 매우 중요하고 진지한 결정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우리 둘이서 내려야 할 결정이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음성보다 영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고, 자녀를 가짐으로써 축복을 누리 왔다.

주님께서서는 아브라함과 성약을 맺으셨을 때, 수많은 후손을 약속하셨다.(창세기 17:5~6; 22:17 참조) 그 경전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축복은 자녀를 갖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우리는 후손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우리의 신성한 잠재력을 발전시킬 수 있다. 자녀를 둘 때, 우리는 전세의 영들이 지상으로 와서 육신을 얻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



나는 우리 삶에서 자녀를 갖는 것만큼 영생을 준비할 좋은 방법은 거의 없다고 믿는다. 우리가 주님의 속성을 적용하는 법을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장소는 가정이다. 이제 엄마가 된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가까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매일 상기하고 있다. 나는 늘 기도로 인도와 힘과 인내를 구하고, 자녀를 가짐으로써 받는 많은 축복에 감사를 표한다.

부모가 되는 일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며 삶을 바꾸는 경험이지만, 우리에게 수많은 기쁨을 안겨 주기도 한다. 첫째 딸이 초등학교 노래를 부르는 것을 들을 때마다, 두 살짜리 아들이 가족 기도 시간에 눈을 감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볼 때마다, 자는 어린 아들을 가슴에 안을 때마다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내 마음속 가득 차오르는 것을 느낀다. 아이들은 우리가 삶에서 아무리 많은 시련을 겪더라도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연료 같은 존재이다. 우리 아이들의 엄마가 될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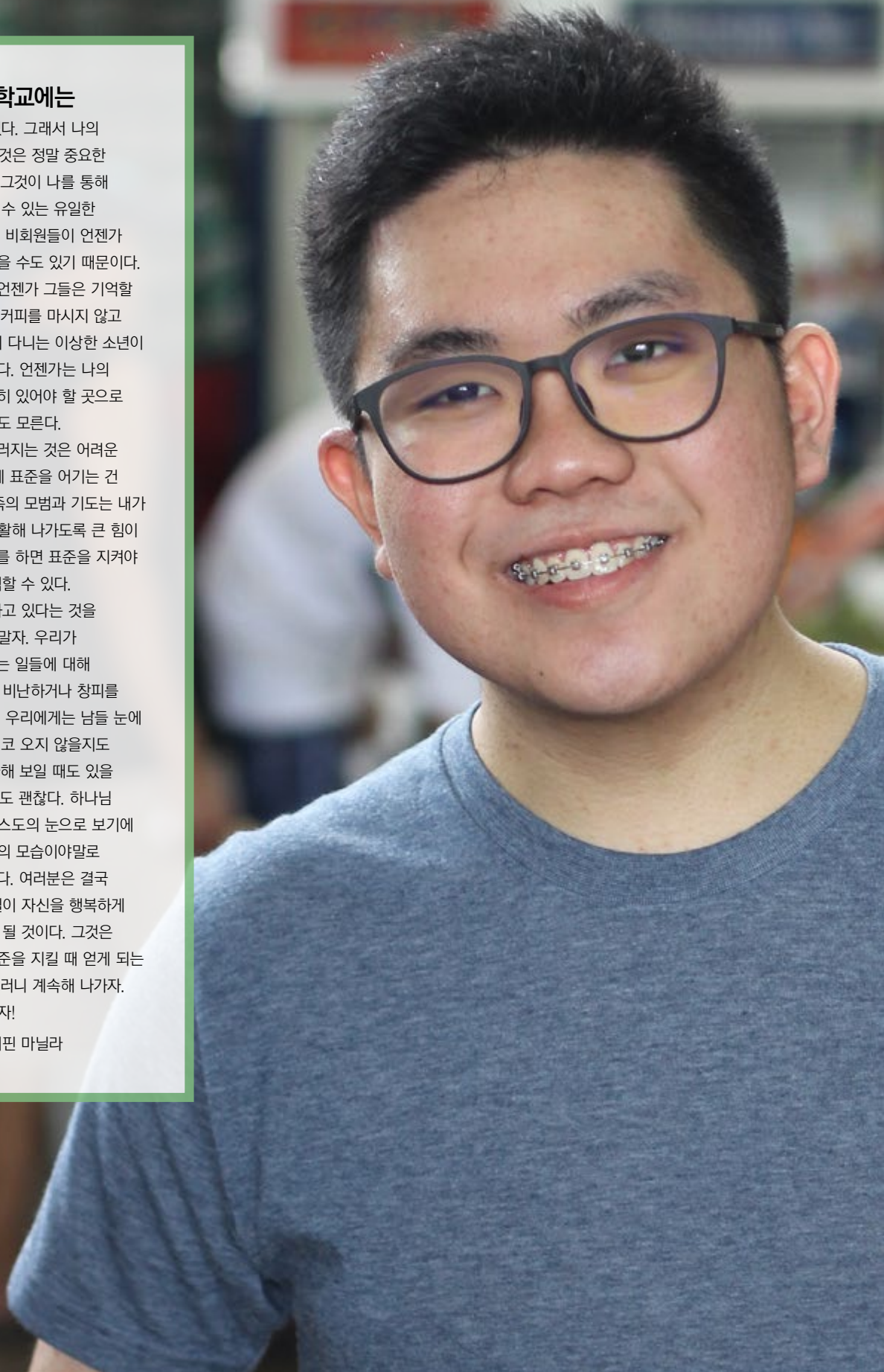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안다. 영원한 참된 행복으로 가득한 감미로운 순간들, 또 시련 속에서도 나는 그분의 사랑을 느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의 집으로 돌아갈 방법을 보여 주시고자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나는 내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이 영원히 함께할 수 있음을 안다. ■

클쓰이는 니카라과 마나과에 산다.

## 내가 다니는 학교에는

교회 회원이 거의 없다. 그래서 나의 표준대로 생활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통해 복음의 빛이 전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이로 인해 비회원들이 언젠가 교회를 이해하고 찾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그들은 기억할 것이다. 아이스티와 커피를 마시지 않고 옥도 안 하는 교회에 다니는 이상한 소년이 있었다는 것을 말이다. 언젠가는 나의 모범이 그들이 마땅히 있어야 할 곳으로 그들을 이끌게 될지도 모른다. 남과 다르거나 두드러지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 있다. 반면에 표준을 어기는 건 정말 쉽다. 우리 가족의 모범과 기도는 내가 온종일 표준대로 생활해 나가도록 큰 힘이 되어 준다. 또, 기도를 하면 표준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다.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한순간도 의심하지 말자. 우리가 회원이기에 하지 않는 일들에 대해 사람들은 늘 우리를 비난하거나 창피를 주려고 한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남들 눈에 멋지게 보일 날이 결코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초라해 보일 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기에 표준을 지키는 우리의 모습이야말로 멋진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결국 지금 자신이 하는 일이 자신을 행복하게 하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은 참으로 여러분이 표준을 지킬 때 얻게 되는 영원한 기쁨이다. 그러니 계속해 나가자. 우리의 표준을 지키자!

**네이션 오**, 필리핀 마닐라



이번 호 이야기



**52** 삶을 위한 준비: 달성 가능한 현실적인 목표 세우기  
차켈 워들레이

**54** 구원의 계획에 대한 이해로 평안을 얻다  
낸스 리폴드 제이 미카바니

**56** 갈릴리 사람들  
브리에나 콜 허버트

**60** 질의응답:  
제 전자기기 때문에 교회 모임과 세미나리에 집중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62** 우리들 공간

**64** 교회 지도자들의 답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 달성 가능한 현실적인 목표 세우기

더 나아지고 싶은가? 특정 기술을 더 능숙하게 익히고 싶은가?  
완전히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은가?  
그렇게 하려면 몇 가지 목표를 세워야만 한다.

차켈 위들레이  
교회 잡지

**때**로 우리는 수 많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하다가도, 그후에는 잊거나 포기해 버린다. 어디서 많이 들어 본 소리인가? 변화하고 나아지고 싶으면서도 왜 때로는 우리가 설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계속 노력할 수 없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의 목표가 얼마나 현실적인가, 그리고 얼마나 큰 노력을 기꺼이 기울이는가에 달려 있다!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에 관한 몇 가지 조언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 **균형 잡힌 목표를 설정한다.** 한 가지 면만이 아니라 삶의 다양한 면을 강화하는 데 집중한다. 구주께서 그에 대한 완전한 모범을 확립하셨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누가복음 2:52) 즉, 그분은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영적인 면에서 성장하셨다. 여러분도 그와 같이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목표가 있을 때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깨달음은 목표에 도달하는데 필요한 지속적인 노력의 동력이 되어 줄 것이다.

• **목표를 기록한다.** 목표를 매일 볼 수 있는 곳에 둔다! 자기 방에 있는 메모판이나 학교의 사물함 또는 휴대전화 등에 두고, 자주 검토한다. 자신이 정한 목표를 더 자주 상기할수록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더 많이 하게 된다.



### 가장 중요한 목표

“하나님의 면전에서 돌아가는 것과 성약을 맺고 지킴으로써 영원한 축복을 받는 것이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엠 러셀 벨라드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  
“돌아가서 받으십시오”, 2017년 4월 연차 대회

• **구체적인 목표를 정한다.** 목표 목록에 “새로운 무언가를 배운다”가 있다면, 그것은 현실적인 목표는 맞지만 구체적인 목표는 아니다. 어떤 것을 배우고 싶은가? 새로운 악기? 새로운 조리법? 완전히 새로운 취미? 달성하고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 **목표 달성을 위한 시간을 낸다.** 삶이 너무 바쁘고 학교와 직장, 친구 및 가족 사이에서 치이다 보면 목표를 잃기 쉽다. 하지만 목표를 이루기 위해 매일, 매주 혹은 자신이 원하는 만큼 자주 특정 시간을 설정해 놓으면, 그 목표를 지킬 가능성이 높다.

• **단기 목표를 정한다.** 주요 목표를 세울 수 있지만, 그 목표를 성취하려면 중간중간 이정표를 만들어 두어야 한다. 즉, 계획이 필요하다. 예컨대 올해 마라톤을 해 보겠다고 가정해 보자. 42km를 달리려면 작은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매주 몇 킬로미터를 달리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매주 서서히 거리를 늘려 간다. 목표를 성취할 계획을 세우면, 우리가 그것을 성취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잠언 16:9 참조)

• **너무 많은 목표를 세워서는 안 된다.** 계획한 것을 거의 기억도 못할 만큼 많은 양의 목표를 세워서는 안 된다. 무턱대고 한 번에 40가지 목표에 덤벼드는 대신 두어 가지 중요한 목표부터 시작하면, 짓눌리는 느낌도 덜하고 목표를 위해 노력할 때 더 큰 자신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필요한 것은 일을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다. “지혜와 질서 안에서 행해지도록 할지니, 이는 사람이 그가 가진 힘보다 더 빨리 달음질함이 요구되지 아니함이라.” (모사이야서 4:27) 그리고 한 가지 목표를 달성하면, 또 다른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커진다! 작은 일에서 큰일이 생겨난다. ■

# 구원의 계획에 대한 이해로 평안을 얻다

엄마가 말기 암  
진단을 받으셨을  
때, 슬픔만 가득한  
어떤 길이 내 앞에  
열리는 듯했다.  
그때 엄마는 구원의  
계획에 관한 간증을  
나누셨다.

낸스 리골드 제이 미카바니

몇 년 전, 부모님의 결혼기념일  
날 엄마는 췌장암 4기 진단을  
받으셨다. CT(씨티) 촬영  
결과, 엄마는 생명이 위태롭고 상태도  
악화되고 있었다. 나는 엄마가 오래 살지  
못하시리라는 것을 직감했다.

나는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다.  
엄마가 없는 삶을 상상해 보니 모든 것이  
어둡고 우울하고 슬펐다. 즐거움과 웃음이  
사라지고, 나를 위로해 주던 엄마의 따뜻한  
포옹도 없을 터였다. 그건 삶이라고 할 수  
없을 것만 같았다.

몇 달이 지나면서 엄마는 계속  
쇠약해지셨다. 하지만 정말 놀랍게도  
엄마는 교회에 가고, 매일 가족 경전  
공부에 참여하고, 가정의 밤 공과를 하려  
하고, 우리와 함께 웃고 싶어 하셨다.

어느 날, 나는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다. “엄마는 하나님 아버지께 여쭙  
본 적 없어요? 왜 엄마가 암에 걸려야만  
하는지 의아하게 여긴 적이 없으셨어요?”  
엄마는 빙긋이 웃으시며 구원의 계획에



대해 간증하셨다. 엄마는 구원의 계획이 가져다주는 참된 행복을 느끼기 위해 그 계획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또, 우리가 어디서 오는지, 이생에서 우리의 목적은 무엇인지,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지 이해한다면, 우리는 항상 함께할 것이고, 절대 엄마를 잃는 것이 아님을 깨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엄마는 내가 계속해서 선교 사업을 준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의 계획을 나누며 위안과 행복을 얻는 축복을 전하도록 나를 격려하셨다.

나는 엄마가 옳다는 걸 깨달았다. 성약을 지키고 아버지의 뜻을 이룰 때 다음 생에서 엄마를 만나게 되리라는 것을 안다면, 엄마를 이 지상에서 잃는 것을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있나? 그렇게 평안이 내 마음속에 찾아왔다.

얼마 후에 엄마는 세상을 떠나셨다. 장지로 떠나기 전 엄마의 생애를 기리는 모임을 하면서 내 마음은 힘들고 슬펐지만, 모든 것이 평화롭게 보였고 나는 여전히 엄마가 함께 계심을 느낄 수 있었다. 주위

사람들 또한 고양되는 듯 보였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을 이해하는 데서 오는 참된 축복을 느끼고 있음을 알았다.

마침내 장지로 갈 시간이 되었을 때, 한 어린 남자아이가 내게 다가왔다. 그 아이는 내게 왜 울지 않느냐고 물었다. 내가 전에 엄마의 죽음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어떻게 슬픔과 비탄으로만 이를 여겼는지가 떠올랐다. 나는 웃는 얼굴로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을 맞추며 말했다. “그건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른다면 엄마와 다시 만나리라는 걸 알기 때문이야.” 그러자 그 아이도 환한 웃음을 지었다. 나는 그 아이가 나와 똑같이 평안을 느꼈다는 것을 알았다.

엄마는 돌아가셨지만, 내 삶을 채우리라고 생각했던 어둠, 우울, 슬픔은 어디에도 없었다. 나는 엄마께 작별인사를 하고 다음 생에서 다시 만나게 되리라고 말씀드렸다. 나는 엄마를 잃었지만 위안을 느꼈다. 그것은 구원의 계획을 이해하는 데서 오는 축복이었다. ■

글쓴이는 필리핀에 산다.

---

사망 이후의 삶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교리와 성약 76편을 읽어 본다. 여기에서 주님은 해의 왕국, 달의 왕국, 별의 왕국을 상속받는 자들에 대해 설명하시고, 이 왕국들의 영광을 해, 달, 별에 비유하신다.

---



# 갈릴리 사람들



브리어나 콜 허버트  
교회 잡지

**구** 주께서는 지상에 계시는 동안 많은 이들에게 성역을 베풀고 그들을 가르치셨다. 여기 이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역을 직접 경험했다. 이들이 경전에 나오는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들려준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듣게 될까?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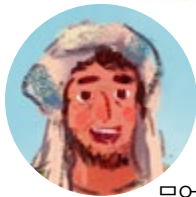
**어린이:**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도들 가까이에서 있었어요. 사도들은

어떤 문제로 논쟁하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들에게 왜 논쟁을 하고 있는지 물으셨죠. 사도들은 조용해졌고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셨어요. 그분들은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큰지를 놓고 논쟁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구주께서 저에게 손짓을 하셨어요. 저는 사도들 가운데에 섰고, 구주께서 저를 두 팔로 안아 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제일 큰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33~37; 마태복음 18:1~5 참조)



**남자아이:**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이 병든 자들을 위해 행하신 기적에 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디베랴에 오셨을 때 저는 그분을 따르는 무리와 함께 있었는데, 한 5,000명은 모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보리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갖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들을 가져가서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서 제가 가지고 있던 음식으로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배부르게 먹고 나서 제자들이 남은 음식을 모았더니 열두 바구니에 가득 찰 만큼이나 음식이 남아 있었어요. (요한복음 6:5~14 참조)



**남자:** 저는 중풍에 걸려서 사지를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원치 않는 경련이

나타나곤 했는데, 정말 끔찍할 정도였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집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신다는 소식을 들은 제 친구들은 제가 그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며 저를 그분께로 데려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집 안은 사람들로 꽉 차서 발 디딜 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은 저를 지붕을 통해 집 안으로 들여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친구들은 지붕을 뜯어서 저를 예수 그리스도 앞까지 내려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저를 보시고는 제 죄가 사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제게 일어나 제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명하셨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렇게 했고, 주변에 있던 모두가 크게 놀라워했습니다.(마가복음 2:1~12 참조)



**왕의 신하:** 제가 가나에 있었을 때, 제 아들은 가버나움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근방에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그분께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제 아들을 고쳐 주십사 청했고, 주님은 아들이 살아 있으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답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믿었습니다. 제가 집에 도착하자 종들이 마중을 나와서 아들이 살아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아이가 언제부터 상태가 좋아지기 시작했는지 묻자 그들은 어제 일곱 시부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제 아들이 살아 있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이었습니다.(요한복음 4:46~53 참조)



**막달라 마리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게서 일곱 명의 귀신을 쫓아 주셨습니다.

저는 그분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여러 마을을 다니실 때 그분을 따라 다녔습니다.(누가복음 8:1~3 참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도 그곳에 있었습니다.(요한복음 19:25 참조) 저는 주님의 시체가 안치된 무덤에 찾아갔고, 부활하신 그분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도 저입니다. 부활하신 그분을 처음 보았을 때는 그저 동산지기인 줄만 알았지만, 저의 이름을 부르시는 목소리를 듣자마자 저는 저의 구주를 단박에 알아보았습니다.(요한복음 20:11~16 참조)



**살로메:** 제 남편은 세배대이고, 제 두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였던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시는 동안 그분을 따르고 섬겼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저도 골고다에 함께 있었습니다.(마가복음 15:37~41 참조) 그분의 시체에 바르기 위해 무덤으로 향품을 가져갔지만, 제가 도착했을 때 그분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저는 하얗고 긴 옷을 입은 한 청년을 보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무서워하자, 그는 제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으니 그 소식을 사도들에게 전해 주라고 말했습니다.(마가복음 16:1~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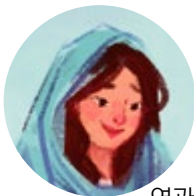
**시몬 베드로의 장모:** 제가 끔찍한 열병에

걸려 몸져누워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소식을 듣고 와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제 손을 잡고 저를 일으키시자 즉시 열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몸이 가뿐해져서 주변 사람들에게 대접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마가복음 1:29~31 참조)



**나인의 과부:** 제 아들이 막 숨을 거뒀을 때의 일입니다. 이미 남편도 저세상으로

보낸 처지였기에 저는 너무도 큰 슬픔 때문에 몸을 가눌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곁에 있었지만,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의 시체를 성문 밖으로 옮길 때 제게 다가온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분은 저를 불쌍히 여기시며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제 아들에게 다가갔고, 아들을 메고 가던 사람들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 아들에게 일어나라고 명하셨습니다. 제 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아이는 일어나 앉아 말을 하고 제게로 왔습니다. 제 아들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우리 가운데 큰 선지자가 계심을 알았습니다.(누가복음 7:11~17 참조)



**마리아:** 저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믿어왔지만, 그 일에 제가 연관되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천사가 제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아이를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했을 때, 저는 요셉과 이미 약혼한 상태였습니다.(누가복음 1:26~38 참조) 그리고 메시아는 실제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제가 마구간에서 그분을 낳았습니다.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이 그분께 선물을 드리러 찾아왔습니다.(마태복음 2:1~12; 누가복음 2:1~20 참조) 요셉과 제가 그분을 키웠지만, 그분은 항상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언젠가 그분이 사흘 동안 사라지신 적이 있는데 우리는 결국 그분을 성전에서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학식 있는 자들은 그분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무언가를 묻기도 하며 함께 있었습니다.(누가복음 2:40~52 참조)



**빌립:** 저는 그리스도의 사도 중 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복음을 전파하도록 우리를 보내시면서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병든 자를 고치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낼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금전이나 옷을 가져가지 말라고 하였고, 우리가 박해당하리라는 것을 알려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견디면 구원받으리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분을 신뢰했습니다.(마태복음 10:1~10, 17~18, 22~23 참조)



**다대오 유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어느

날, 늘 그렇듯이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었는데, 별안간 그분이 지상에 그리 오래 머물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당신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을 사랑하면, 우리에게로 오셔서 당신을 나타내 보이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성신을 보내셔서 당신이 가르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도록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요한복음 14:19~27 참조) ■

# “제 전자기기 때문에 교회 모임과 세미나리에 집중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스마트폰 같은 휴대기기는 축복이지만, 우리가 '고요하고 작은 음성'을 듣는 것에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기기는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종이여야 합니다. ...

... 스마트폰이 우리의 친구와 가족 관계,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방해가 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변화해야 합니다.”

엠 러셀 벨라드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인 줄 알라”(청년 성인을 위한 교회 교육 기구 영적 모임, 2014년 5월 4일), broadcasts.lds.org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저는 최근에 제가 교회 모임이나 청소년 활동 시간에 전자기기를 자주 사용한다는 걸 느꼈어요. 습관이 되어 버린 거죠. 휴대전화가 시야에 들어올 때마다 곧바로 손에 들고 새로운 알림이나 문자 메시지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만 했어요. 해결책이 뭐였냐고요? 눈에 띄지 않는 곳에 휴대전화를 숨기는 거였어요. 가방 안이나 의자 아래에 두든지, 친구에게 맡기든지 해서 전화가 눈에 보이지 않게 하면 그걸 사용하고 싶은 유혹도 없을 거예요.

**타린 엠, 15세, 미국 플로리다주**



**방해받지 않기 위해 최대한 준비하세요**

안식일을 위해 마음과 몸을 준비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의 기기를 준비하세요. 공과 중에는 알림을 무음으로 바꾸세요. 복음 자료실 앱을 다른 앱과 분리해 놓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경전이나 노트를 사용해야 할 때 다른 앱 때문에 방해받는 일을 피할 수 있어요.

**델귀마르 에스, 21세, 브라질 상파울루**

**도움을 간구하세요**

저는 기도로 영을 구해요. 그러면 안식일을 보내고 세미나리를 하는 동안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데 도움이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물몬경을 읽을 때마다 저는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을 방법을 알게 돼요.

**데지레 엠, 18세, 코트디부아르 코모에구**

### 경전 인쇄본이 있잖아요!

복음 공부를 하기 위해 전자기기를 사용해도 되지만 때로는 통제하기 어렵기도 해요. 그런 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경전 인쇄본을 사용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테고, 여러분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영을 느끼게 될 거예요.  
*아이야나 에이, 13세, 필리핀 라구나*

### 휴대전화를 치우세요

저는 교회에서 휴대전화를 무음으로 해 두고, 경전 구절을 찾기 위해 사용할 때를 제외하고는 주머니에 넣어 두어요. 성찬식 동안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아요. 사용하고 싶은 유혹을 피하기 위해 아예 손에서 멀리 두죠.

*윌리엄 더블유, 17세, 미국 버지니아주*



## 친구들이 결혼과 가족에 관한 우리의 믿음에 대해 물을 때 뭐라고 답해야 할까요?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에서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는 “남녀간의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여 주신 것이며 가족은 창조주께서 그의 자녀들의 영원한 운명을 위하여 마련하신 계획의 중심”임을 선언한다.(familyproclamation.lds.org)

이 선언문은 “계시를 받는 과정”을 통해 나온 “영원한 진리를 밝혀 주는 성명”이지, “단지 정책을 써 놓은 글”이 아니다.(델린 에이치 옥스, “구원의 계획과 가족 선언문”, *리아호나*, 2017년 11월호, 30쪽) 여러분은 이에 관한 자신의 신념과 이런 진리가 가져다주는 축복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에 응답할 때에는 독선적인 태도를 버리고 논쟁을 피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마음을 연 진심 어린 사람들은 진심 어린 답을 얻을 자격이 있다. 하지만 진지하지 않은 누군가가 단지 당신의 견해를 조롱하거나 경시하려는 것이 분명하거나 단지 싸움을 걸려고 한다면, 논쟁을 피하는 것이 최선이다.(마태복음 7: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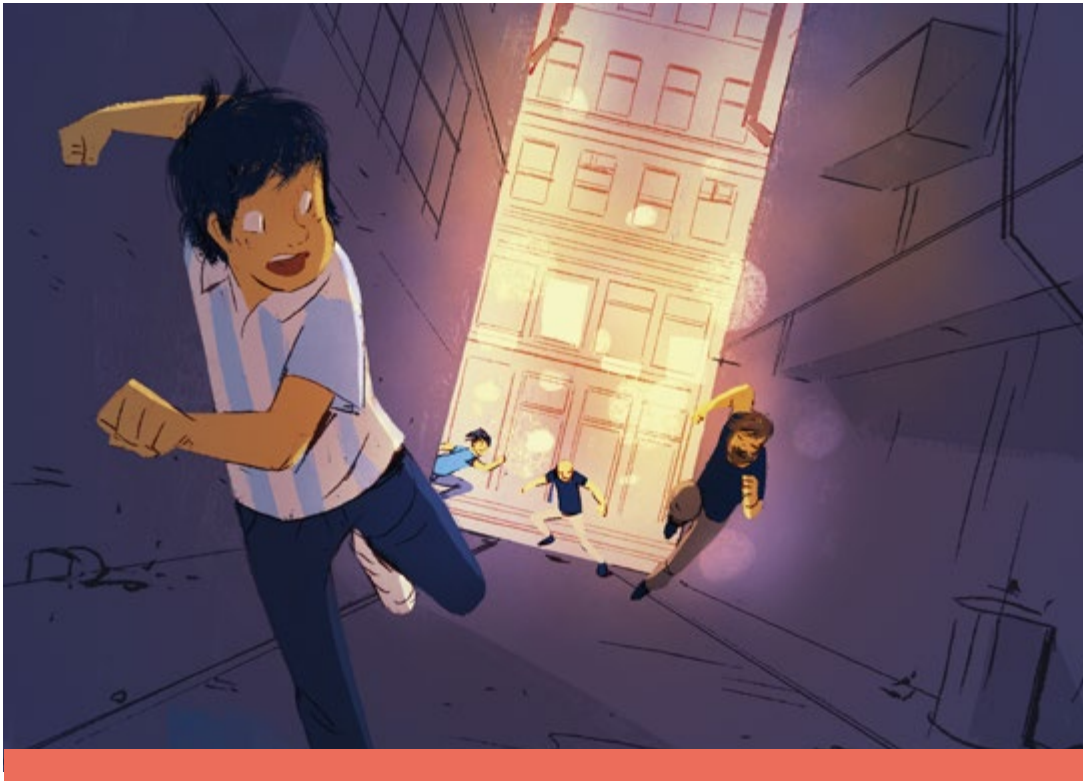
제시된 의견은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일 뿐, 교회의 공식 교리를 밝히는 것은 아닙니다.

### 다음 질문

“침울해 보이는 친구들 사이에서 어떻게 긍정적인 태도를 지닐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과 고화질 사진(원할 경우)을 2019년 7월 15일까지 [liahona.lds.org](http://liahona.lds.org)로 제출해 주십시오.(“기사 또는 피드백 제출” 클릭)

명확하게 표현하거나 분량을 조절하기 위해 보내 주신 의견을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 달아나!

어느 날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아까 친구들과 만난 곳에서 고작 몇 블록 떨어졌을 뿐인데 이제 거리는 완전히 캄캄해졌다. 내가 어디를 걷고 있는 건지 잘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그때 젊은 남자 셋이 나를 따라오는 것이 느껴졌다. 그들과 거리를 둘 셈으로 더 빨리 걷기 시작했지만 그들은 계속 나를 따라왔다. 불안감이 엄습했다. 그때 머릿속에 또렷하게 떠오른 생각이 있었다. ‘달아나!’ 나는 언덕길로 내달리기 시작했다. 오르막이 무척 가팔랐지만, 순간 내 것이 아닌 어떤 힘이 느껴졌다. 나를 초월한 힘이였다.

남자들도 달리며 뒤쫓았고, 나는 거의 따라 잡힐 지경이었다. 막다른 곳에 갇힌 기분이 들었다. 그때 또다시 좁은 골목을 따라 내려가라는 생각이

또렷하게 떠올랐다. 그 골목을 따라 내려가자 정말 놀랍게도 경찰관이 보였다. 긴 거리를 달리느라 기진맥진해진 나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남자들은 내가 경찰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더니 발길을 멈추고는 결국 도망쳤다. 경찰관은 나의 확실한 안전을 위해 나를 집까지 바래다주었다.

그날 밤, 나는 내가 받았던 영의 속삭임들을 계속해서 생각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도와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어 마음이 평온해졌고, 그분의 인도에 감사드리는 기도를 드렸다. 나는 우리가 영의 음성에 순종한다면 안전하리라는 것을 안다.

마르틴 에스, 아르헨티나 푸에르토마드린

“여러분은 가장 훌륭한 안내자인 성령의 속삭임을 따르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계시입니다. 영적인 위험을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이드 케이 패커(1924~2015)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영적인 약어”, *리아호나*, 2002년 10월호, 11쪽.

—

영의 속삭임을 듣고  
따를 수 있도록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1. 가만히 있는 시간을 보낸다.  
깊이 생각하고 사색하기  
위해 조용한 시간을  
보내면 영에 귀  
기울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시편 46:10  
참조)
2. 회개한다.  
회개를 통해 깨끗해지면,  
영은 우리의 동반자가 될  
수 있다.(엘머서 34:36  
참조)
3. 연구한다.  
주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그분의 음성을 더 쉽게  
인식할 수 있다.(교리와  
성약 1:38 참조)



## 일어나는 건 나의 책임이다

일요일에는 보통 엄마가 나를 깨워 주셨다. 덕분에 나는 준비를 하고 언제나 모임이 시작되기 전에 교회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어느 일요일, 엄마가 나를 깨우지 않으셨다. 혼자 잠에서 깬데, 평소와 달리 가족들이 교회에 갈 준비를 하는 기척이 들리지 않았다. 초조한 마음으로 시계를 보니 벌써 교회 모임에 30분이나 늦은 시각이었다. 성찬식을 놓친 것이다. 아마 주일학교 참석도 어려울 것이었다.

혼란스럽고 버림받은 느낌이 들었다. 엄마는 왜 오늘 아침에 나를 깨우지 않으셨을까? 항상 나를 깨워 주셨는데 말이다. 그때 갑자기 한 가지를 깨달았다. 내가 교회에 시간 맞춰 가도록 일어나는 것은 엄마의 책임이 아니라 나의 책임이었다. 하나님 아버지와 성약을 맺은 사람은 나이고, 그 성약을 지키는 것도 나의 책임이었다.

그날 오후, 엄마는 교회에 가도록 깨워 주지 않으신 일에 대해 말씀하셨다. 엄마는 이제는 나를 깨워 주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간증은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 주 내내, 나는 부모님의 간증에 영원히 의존할 수는 없으며 자신의 간증을 강화하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그때 이후로, 나는 매주 일요일 일찍 일어나서 교회에 시간 맞춰 가고 성찬을 취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나는 영적으로 자립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

리아 아우비스, 브라질 세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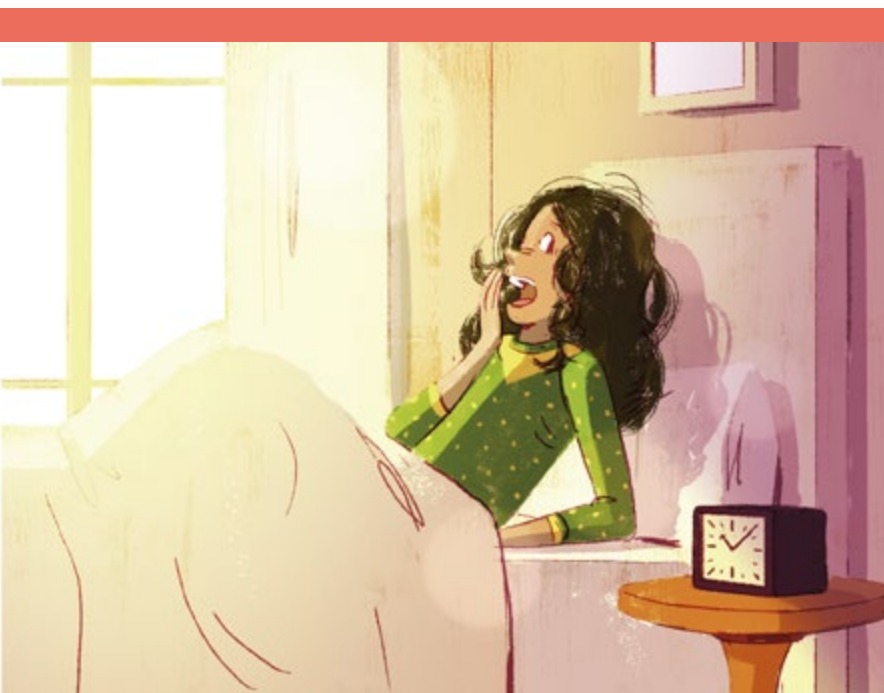
## 무례한 사람을 위한 기도

나는 식품값을 계산하기 위해 엄마와 함께 줄에 서 있었다. 줄은 붐볐고, 그래서 엄마는 물건을 사기 위해 우리 앞에 있는 어린 남자아이 쪽으로 몸을 숙여야 했다. 그때 그 어린 남자아이가 엄마를 발로 차기 시작했다. 아이가 두 번째로 엄마를 쳤을 때, 엄마는 뒤로 물러서며 아이를 타이르셨다. “발로 차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러자 아이의 엄마가 몸을 돌리더니 아이가 발로 찬 것은 우리 엄마의 잘못이라고 말하며 온갖 모욕적인 말을 다 퍼부었다. 그 사람은 다시 몸을 돌려 계산원에게도 무례하게 굴었고, 나는 그 모습을 계속 지켜보았다! 겉으로는 침착하게 행동했지만, 속으로는 화가 치밀었다. 억울했다. 엄마나 내가 잘못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속이 상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방으로 가서 경전을 꺼냈다. 잠시 경전을 읽은 후,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도하고 싶은 기분은 들지 않았지만, 나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기도하다 보니 결국, 우리에게 정말 고약하게 굴었던 그 사람을 위해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지금까지 느껴 본 것 중 가장 평온한 느낌이 내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혔다. 그 사람에게 화를 내고 싶은 마음은 더는 들지 않았다. 나는 사랑을 느꼈다.

테레사 지, 미국 아이다호주



#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십이사도 정원희

한 번은 어떤 유명한 군대 지도자가 단호하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코 두려움과 타협하지 말라.”<sup>1</sup>

오늘날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두려워하고 망설일 만한,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오랫동안 바라 왔던 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구심을 품을 만한 이유를 수도 없이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세상적으로나 영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의문을 느끼거나 자신감이 부족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많은 사람의 삶에서 너무나 쉽게 찾고 인식할 수 있는 주님의 지원과 인도의 약속이 자신의 삶에서도 그렇게 분명하게 주어질지 의문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세세하게 모든 것을 다 내다볼 수는 없기에 기회를 좇는 것에 대해 확신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첫걸음을 떼고 내딛는 것을 망설이기도 합니다. 또는 실수할까 봐 너무 염려한 나머지 신앙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며, 그것 때문에 자신이 두려워하는, 바로 그 실패를 할 가능성이 더 커지는지도 모릅니다.

두려움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두려움이나 불확실성이 우리 삶의 진로를 결정하거나, 우리의 태도와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중요한 결정에 부적절한 영향을 주거나,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유덕하고 사랑할 만하거나 혹은 듣기 좋은 모든 것에서 멀어지게 하거나 방해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려움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분을 믿는 굳건함을 지니고 힘써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려움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와 확신, 그리고 그분이 우리 삶에서 정하신 때를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려움과 타협하지 않는 법을 배운다면, 인도와 보호와 끝없는 기쁨으로 축복받게 될 것임을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하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할 때, 우리는 적어도 한 걸음 나아가고 다음, 또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만큼의 인도를 받을 것이라는 절대적인 확신을 품고 어둠 속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충실하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sup>2</sup>

토마스 에스 몬슨(1927~2018) 회장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십시오. 미래는 여러분의 신앙처럼 밝습니다.”<sup>3</sup>

여러분이 신앙으로 미래를 맞이한다면, 구주께서는 평생 여러분이 의롭게 노력할 때마다 여러분보다 앞서 나아가실 것이고, 오른쪽에도 왼편에도 계시는 것이며, 주님의 영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할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84:88 참조) ■

2012년 12월 15일, 브리검 영 대학교-하와이에서 열린 영적 모임 말씀에서 발췌함.

주

1. In Mary Anna Jackson, *Memoirs of Stonewall Jackson* (1895), 264.
2. *The Personal Writings of Joseph Smith*, ed. Dean C. Jessee, rev. ed. (2002), 338.
3. 토마스 에스 몬슨, “기뻐하라”, 2009년 4월 연차 대회.

1952년 6월 15일에  
캘리포니아주  
샌리앤드로에서 태어남.



독일 남부에서  
선교사로  
봉사.

1997년부터 2004년까지  
브리검 영 대학교  
-아이다호  
총장으로 일함.



#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1975년에  
수전 로빈슨과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결혼함.



어릴 때  
그는 가족을  
도와 과일  
통조림을  
만들기도 함.  
병보다 본인  
입으로 들어간  
과일이  
더 많았다고  
농담함.



고등학교  
미식축구팀에서  
쿼터백이었음.

플래그 풋볼 경기(전통적인 태클 대신 수비수가  
상대 공격수의 허리에 찬 기를 뺏는 경기)에서  
아내를 만남. 자신이 멀리서 던진 공을 받아 낸  
그녀를 보고 깊은 인상을 받음.



텍사스 공대와  
야칸소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브리검 영 대학교를  
졸업함.

퍼듀 대학교에서 조직 행동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음.



2004년 10월 7일에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으로  
지지받음.

  
슬하에 세 아들을 둬م.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 중  
하나는  
“이스라엘 구속주”  
(찬송가, 27장)임.





청년 성인

가족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이번 호에서는, 자녀를 갖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청년 성인들이 그 시련을 극복한 경험을 나눈다.

42

청소년  
목표를 설정하는 것에 관한 조언

52

죽음과 슬픔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함

54

신약전서  
갈릴리의 사람들을 만나 보자

26, 56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



4

4

# 친구들



안녕하세요? 여기는  
**도미니카 공화국**  
이에요!  
친8~11쪽을 보세요.



러셀 엠 넬슨 회장

#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만 했던 적이  
있나요? 기다리는 동안  
무엇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까요?

**제** 증조부모님 여덟 분은 모두 유럽에서 교회에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모두 교회에 매우 충실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저의 몇몇 조상은 복음에서 멀어지셨습니다. 거기에서 영향을 받은 저의 부모님도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 잘 가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사랑했습니다. 부모님은 저에게 매우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주신 부모님께 얼마나 마음 깊이 감사드리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도 저는 우리 가족이 교회에 잘 가지 않기 때문에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한 책을 찾아보기 위해 전차를 타고 서점에 갔습니다. 저는 복음을 공부하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지혜의 말씀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저는 부모님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들은 그 율법의 가르침에 어긋난 삶을 살고 계셨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지혜의 말씀대로 생활하시길 바랐습니다! 어느 날 저는 집에 있던 모든 술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버렸습니다! 아버지께 혼이 날 거라 생각했지만, 의외로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살 한 살 자라면서, 저는 계속 복음을 공부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운 계획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열여섯 살 때, 침례를 받았습니다. 성탄절 기간이 되면, 저는 자주 이런 혼잣말을 했습니다. “성탄절 선물은 이제 필요 없어! 내가 원하는 건 성전에서 부모님에게 인봉되는 거야.”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까지 저는 오랜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부모님께서 여든 살이 넘으셨을 때, 우리는 드디어 가족으로서 인봉되었습니다! 그날 얼마나 기뻐는지 모릅니다. 저는 아직도 매일 부모님이 서로에게 인봉되시고 제가 부모님께 인봉되었다는 것에서 크나큰 행복을 느낍니다. ●

2018년 4월 연차 대회, “교회를 위한 계시와 우리 삶을 위한 계시”에서 발췌함.

## 색칠하기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쏟으십시오.  
그분께 향하여 응답과  
위안을 구하십시오.”

—러셀 엠 넬슨 회장

# 새로운 장

제인 맥브라이드

실화에 근거함

“이 많은 축복을 받았기에 정말 감사드립니다”(Children’s Songbook, 11)

**엄**마가 방으로 들어오셨을 때 세라는 상자를 풀고 있었어요.

“벽은 노란색으로 칠할까요?”

세라가 엄마께 여쭙었어요.

엄마와 세라는 바로 얼마 전에 이 집으로 이사를 왔어요.

세라는 자신의 새로운 방에 어울릴 이불과 커튼도 골랐어요!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노란색이 좋을 것 같아. 노랑은 행복한 색이지.”

세라는 침대 옆에 있는 작은 선반에 책 몇 권을 올려 두었어요. 요즘

엄마는 이따금씩 행복한 표정을 짓지 못하셨습니다.

아빠가 사고로 돌아가시고

난 이후로는요. 세라는 매일 아침 일어날 때 볼 수 있도록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아빠의 사진을 책들 옆에 정성스럽게 올려 두었어요.

홀쩍이는 소리가 들려서 보니 엄마의 눈가가 젖어 있었어요.

“사랑해요, 엄마.” 세라가 엄마의 허리를 꼭 껴안으며 말했어요.

“내가 더 많이 사랑하는걸, 우리 딸.”

학교가 시작되기 전 토요일, 엄마와 세라는 낡은 옷으로 갈아입은 다음 세라의 방 가운데로 가구를 옮겼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노란 페인트가 담긴 통 안으로 롤러를 조심스럽게 밀어 넣었어요. 얼마 후, 벽은 노랗게 물들었어요.





엄마와 세라의 얼굴과 옷도 셋노란 색이 되었어요!

“햇살이 네 온몸에 튀어 있는 것 같아.” 엄마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세라도 키득대며 말했어요. “엄마는 바나나 폭탄을 맞은 거 같아요!”

엄마와 세라는 청소하면서도 웃음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내일 초등학교에 가고, 월요일에는 학교에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자 세라는 점점 웃음기가 사라졌어요.

“교회와 새 학교에 가는 게 걱정돼요.” 세라는 엄마와 함께 세면대에서 페인트 붓을 행구며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도 아이들도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엄마는 물을 잠그고 세라를 꼭 안아 주셨어요.

“친구는 곧 생길 거야. 세라는 누구나 친구가 되고 싶어 할 만큼 친절할 사람이나까. 멋진 네 모습을 그대로 보여 주면 친구들이 먼저 다가올 거야.”

세라는 기분이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긴장은 되었어요.

“아빠가 계셔서 축복해 주시면 좋을 텐데. 학교가 시작될 때마다 항상 해 주셨던 것처럼요.”

잠시 아무 말씀도 없으시던 엄마가 이렇게 제안하셨습니다.

“와이엇 삼촌은 어때? 틀림없이 기쁜 마음으로 해 주실 거야.”

세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마 축복을 받으면 도움이 되겠지요?

그날 밤, 세라의 삼촌은 세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축복을 주셨어요.

“나는 그대가 인생에서 새로운 장을 시작하는 것을 아시는



구주께서 그대를 보살피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축복하노라. 예수님은 그대를 홀로 두지 않으시리라.”

세라는 ‘새로운 장’이라는 말을 특히 주의깊게 들었어요. 세라는 책 읽는 걸 좋아해서, 책을 읽다 새로운 장을 시작할 때면 늘 기대가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세라는 엄마와 함께 교회에 갔어요. 성찬식 후에 엄마는 세라가 초등학교실을 찾도록 도와주셨어요. 교실 안에서 한 여자아이가 세라를 보고 웃으며 인사했어요.

“여기 앉고 싶으면 앉아도 돼.” 그 아이가 옆에 있는 빈 의자를 톡톡 치며 말했어요.

“고마워. 내 이름은 세라야. 새로 이사 왔어.”

“나는 멜로디야. 나도 이사 왔는데! 오늘 두 번째로 온 거야.”

얼마 안 가서 멜로디와 세라는 다른 초등학교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초등학교 선생님도 정말 상냥한 분이셨어요.

‘학교에서도 이렇게 잘 되면 좋겠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세라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음 날, 세라는 버스를 타고 새로운 학교에 갔어요. 세라는 초등학교에서 본 친구들 몇 명을 3학년 반에서 보게 되어서 정말 기뻐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라는 새로운 친구들과 점심을 먹으며 조용히 기도했어요. “결국, 이번 장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아요!” ●

글쓴이는 미국 콜로라도주에 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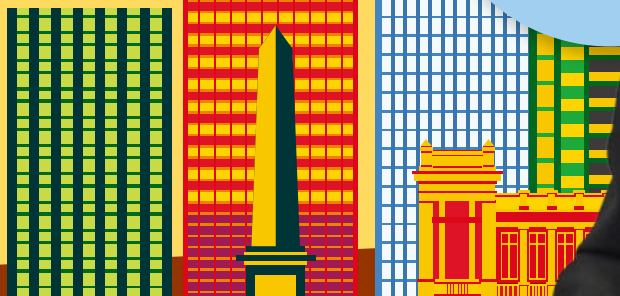
# 브라질을 방문한 쿡 장로



쿡 장로님 부부는 벨루오리존치라는 대도시를 방문하셨습니다.  
벨루오리존치라는 말은 “아름다운 지평선”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쿡 장로님은 이곳에서 평생 어디에서도 보지 못한 아름다운 노을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쿠엔틴 엘 쿡 장로님과 메리 쿡 자매님이 교회 회원들을 방문하기 위해 브라질로 가셨습니다.  
두 분은 그곳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빛이 될 때,  
우리는 세상이 더  
나아지도록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쿠엔틴 엘 쿡 장로





국 장로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많은 사람이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했어요. 국 장로님은 모두에게 빛이 되라고 권유하셨어요. 그 말은 선한 모범을 보이고 다른 사람을 도우라는 의미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어린이들은 하나님의 사도를 만나 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요!

### 노을을 바라보세요

국 장로님이 하셨던 것처럼 노을을 바라보며 감상하는 시간을 보내고, 여러분이 본 노을을 그림으로 그려 보세요. 그런 다음에는 반 친구나 이웃, 가족 중에 친구가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린 그림을 보여 주면서 그 사람의 하루를 환하게 밝혀 주세요.

## 등불 만들기



종이컵  
펀치 또는 뾰족한 연필  
손전등이나 야광 막대기

1. 펀치나 연필로 종이컵의 모든 면에 구멍을 여러 개 뚫어요. 종이컵 바닥에도 구멍을 뚫으세요. 아예 바닥을 다 오려 내도 괜찮아요. (어른에게 도움을 부탁하세요!)
2.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종이컵을 꾸며 보세요. 그런 다음, 종이컵 아래에 손전등이나 야광 막대기를 놓으세요.
3. 이제 불을 끄고, 여러분의 등불이 빛나는 걸 보세요!

도움말: 종이컵이 없다면, 도화지 한 장을 말아서 양 끝을 테이프로 붙이면 돼요.

여러분은 집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어떻게 빛이 될 수 있을까요?

# 이안을 기다리며

조슈아 제이 퍼키

교회 잡지  
실화에 근거함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안이 물었어요.

“초등회 오는 건 즐거운 일이죠. 여러분이 여기 있어 행복하답니다.”(Children’s Songbook, 256)

**이** 안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엄마의 노랫소리가 들렸어요. 그 노래는 “주 사랑 느껴요”였어요. 이안이 가장 좋아하는 초등회 노래이죠! 이안도 엄마를 따라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어요.

“깨어났구나!” 엄마가 소리치셨어요. 환하게 웃는 엄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안은 엄마 옆에 앉아 계시는 아빠를 보았어요. 아빠도 왠지 행복해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들을 매일 불러 주고 있었어.”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빙그레 웃음을 짓던 이안은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어요. 사실은 온몸이 육신거렸고, 특히 다리가 아팠어요. 이안은 주변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거긴 집이 아니었어요. 이안은 이상한 방에 놓인 철제 침대

위에 누워 있었어요. 가까이에는 다른 침대들도 많이 보였고, 간호사 선생님도 보였어요. ‘병원이구나.’ 이안은 생각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안이 엄마께 여쭙었어요. 엄마는 슬픈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큰 사고가 있었어. 철문이 네 위로 떨어졌거든. 병원에 온 지 이제 2주째지. 하지만 곧 괜찮아질 거야.”

2주라니! 이안은 생각했어요. ‘와, 그렇게 오래 잠을 잔 건가.’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건 교회에서 초등회 발표 연습을 하고 있던 거예요.

아, 안 돼! 초등회 발표!

“초등회 발표는 끝났어요?” 이안이 물었어요. 이안은 아주 오랫동안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렸거든요! 이안은 친구들과 함께 노래하는 걸 좋아했어요.

엄마는 웃는 얼굴로 고개를 가로저으셨어요. “아니, 아직 안 했어. 네가 깨어나서 발표에 참여할 수 있을 때까지 미루기로

와드에서 결정했어.”

“정말요?”

“정말이야.” 아빠가 말씀하셨습니다. “초등회 아이들이 모두 감독님께 기다려 달라고 부탁했어. 아이들은 너랑 꼭 그 발표를 같이 하고 싶어. 네가 올해 초등회 발표 준비를 하며 얼마나 들떠 있었는지 아이들도 잘 아니까.”

“아직도 걷는 게 힘든 거야?”

“잘 모르겠어.”

“그럼, 한 번 해 보자.” 차이스는 이안이 일어서도록 도와주었어요. 이안은 조심스럽게 발을 땅바닥으로 내디뎠어요. 그러고는 몸을 앞으로 움직여 보았어요. 이안은 넘어지지 않고 그대로 서 있었어요! 한 달 이상을 누워 있다 처음으로 걷은



이안은 아직 초등회 발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게 기뻐요. 하지만 그러려면 먼저 몸이 나아야 했어요. 그건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었죠. 이안은 좀 더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해야 했어요. 나중에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갔지만, 아직 걷거나 뛰어놀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친구들이 이안을 찾아와 주었어요. 이안은 친구들에게 학교나 교회 소식을 물어보았어요. 친구들도 언제쯤 다시 학교와 교회에 갈 수 있을지 물었지요.

이안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다리가 더 나아질 때까지는 안 돼. 난 아직 걸을 수도 없거든.”

10월에서 11월로 넘어가면서 이안의 몸은 서서히 나아졌어요. 어느 날, 친구들이 와서 같이 영화를 보러 가자고 말했어요. 엄마와 아빠가 이안을 극장까지 데려다주셨죠.

이안의 친구인 차이스가 물었어요. “다리가 아직도 아파?”

“응. 하지만 매일 나아지고 있어.”

거예요! 친구들은 모두 손뼉을 쳤어요.

“이제 교회에 갈 수 있겠다!” 차이스가 말했어요.

그리고 정말 차이스의 말처럼 되었어요. 몇 주가 더 지나자, 이안은 더는 다리에 통증을 느끼지 않았어요. 의사들은 이안의 다리에서 깁스를 풀고 보조기를 달았어요. 일요일이 돌아왔고, 드디어 초등회 발표가 열렸어요.

성찬식 시간에 이안은 친구들과 예배실 앞으로 걸어갔어요. 이안은 똑바로 서서 엄마와 아빠를 향해 싱긋 웃었어요. 이안은 자신이 낼 수 있는 제일 큰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고, 차례가 되자 마이크 앞에 서서 간증을 전했어요. 이안은 초등회 친구들에게 고마웠어요. 그리고 이렇게 초등회 발표에 참여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

**이 이야기에 나오는 소년은 도미니카 공화국에 살아요.  
도미니카 공화국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다음 기사를 읽어 보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도미니카  
공화국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고예요.  
이쪽은 제 동생  
파올로예요.



우리는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갈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와 함께  
가실래요?

## 도미니카 공화국

도미니카 공화국은 카리브해에 있어요.  
아이티라는 나라가 있는 섬 안에 있지요.  
도미니카 공화국에는 약 천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중 약 13만 명이 우리 교회  
회원이예요.

산토도밍고



도미니카 공화국 사람들  
은 스페인어를 써요. 여기  
이 소년이 들고 있는 건 el  
Libro de Mormón(엘 리  
브로 데 모르몬)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물문경이죠!



도미니카 공화국의 많은 어린이들은  
야구를 하는 걸 좋아해요.  
야구는 이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스포츠예요.

EL  
LIBRO  
DE  
MORMÓN

OTRO TESTAMENTO  
DE JESUCRISTO



작년에 선지자께서 도미니카 공화국을 방문하셨고, 사람들에게 스페인어로 말씀하셨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에는 성전이 한 곳뿐인데, 산토도밍고에 있어요. 성전에는 "Santidad al Señor: La Casa del Señor(산티다 드 알 세뇨르: 라 카사 델 세뇨르)"라는 글귀가 써 있어요. 그건 "주님께 거룩함: 주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도미니카 공화국 사람들은 열대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어요. 이 소년들은 코코넛 물을 마시고 있어요!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오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보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우리와 함께 도미니카 공화국 탐험을 해 주어서 고마워요! 우리는 이제 다음 모험을 떠날 거예요!



##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온 친구들을 만나 보세요!



"저는 초등학교에서 어린아이들이 떠들 때, 그 아이들을 도와주는 걸 좋아해요. 종이에 노랫말을 적고 아이들이 노래 부르는 것을 도와줘요. 경전을 읽는 시간에도 아이들이 경전을 읽는 것을 도와줘요."

암바르 오, 11세, 도미니카 공화국



"저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정말 가까이 느껴요. 저는 찬송가와 초등학교 노래도 너무 좋아해요."


이안 알, 8세, 도미니카 공화국

깃털, 어저스, 아구를 하는 소년들 사진: GETTY IMAGES, 집화: 케이티 맥디

# 성신은...

머리사 위디슨

교회 잡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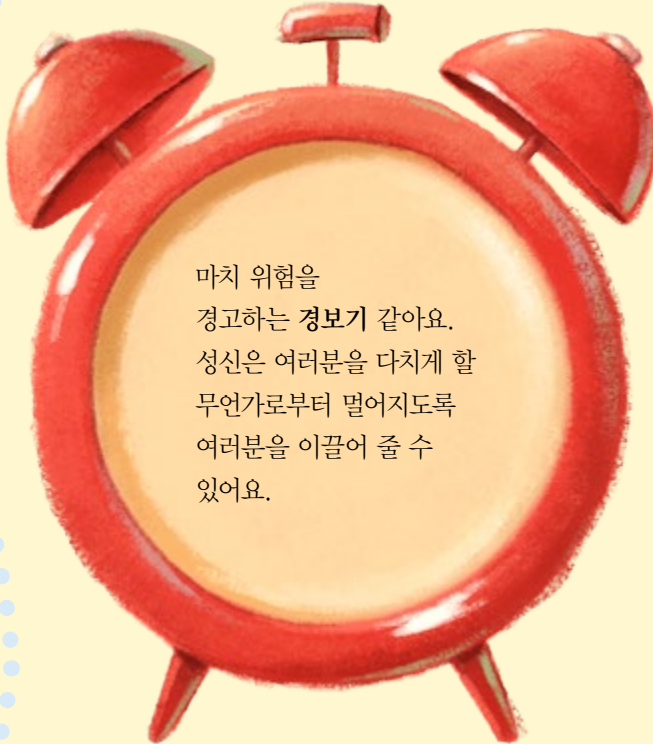


마치 마음을 감싸는  
따뜻한 담요 같아요. 성신은  
여러분이 슬프거나 두려울 때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줄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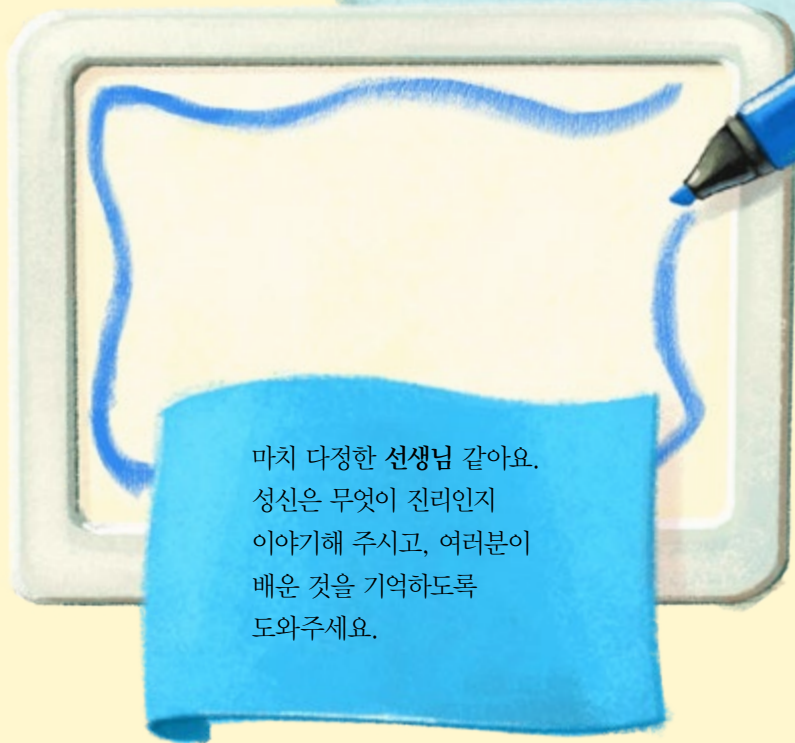
1. 신회의 구성원 중 한 분이예요.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돕기 위해 없기 때문에 때때로 영이라는 이름

2. 침례와 함께 받게 되는 은사예요. “확인”이라는 특별한 축복을 받게 성신을 받으라는 권유를 듣게 되지

3.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약속이에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약속을 맺어 여러분이 성신과 함께할 수 있으리



마치 위험을  
경고하는 경보기 같아요.  
성신은 여러분을 다치게 할  
무언가로부터 멀어지도록  
여러분을 이끌어 줄 수  
있어요.



마치 다정한 선생님 같아요.  
성신은 무엇이 진리인지  
이야기해 주시고, 여러분이  
배운 것을 기억하도록  
도와주세요.



마치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사자와 같아요.  
성신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이 알았으면 하는  
것들을 이해하도록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어요.



말해서, 성신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일하신다는 뜻이에요. 성신은 몸이  
으로도 불리세요.

물에서 나온 뒤에 여러분은  
될 거예요. 확인을 받을 때 여러분은  
요.

요. 성찬을 취할 때 여러분은 계속해서  
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라는 약속을 주세요.

마치 가야 할 길을 알려  
주는 표지판 같아요. 성신은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할 때,  
여러분이 영생으로 가는 길  
위에 머물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마치 여러분과 늘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가장 좋은  
친구 같아요! 여러분은 선한 선택을 함으로써  
성신이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그분을 초대하지요.

### 경전에서

요한복음 14:26

갈라디아서 5:22

니파이후서 31:17~18

교리와 성약 130:22



나는 친절할 수 있어요.

나는  
성신에  
귀 기울일 수  
있어요.

나는 안식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 자신에  
대한 **존중**을  
보일 수 있어요.

나는 단정하게  
옷을 입고  
**점잖게** 행동할  
수 있어요.

나는 **회개**할 수 있고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에도  
다시 노력할 수 있어요.



나는 **정직**할 수 있어요.

# 나는 옳은 일을 선택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 말할 때  
경건한 태도를  
보일 수 있어요.

나는 **고운 말**을  
사용할 수 있어요.

나는 지금 성전에 갈 준비를 할 수 있어요.

나는  
**좋은 친구들**을  
사귌 수 있어요.

나는 내 마음과 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나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가족을 **도울** 수 있어요.

나는 좋은 것들을 읽고  
보고 들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부흥의 힘은 권위 그림의 열부, 앙리리히 호프만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법을  
하나씩 하나씩 배울 수 있어요.



# 어린이 발표



저는 혼자 있는 친구와 같이 놀았어요.

**알렉시스 에이치, 7세, 캐나다 노바스코샤**



저는 신권을 받고 성전으로 가서, 엄마와 제가 이름을 찾은 우리 가족들을 위해 침례를 받을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브리검 더블유, 11세, 오스트레일리아 빅토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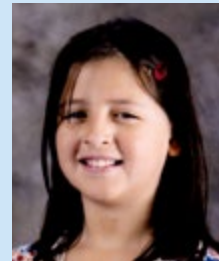


저는 예수님에 대해 배우는 걸 너무 좋아해요.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하면 정말 감사해요.

**사라 디, 6세, 브라질 히우그란지두술**



**필립 더블유, 8세, 잉글랜드 랭커셔**



저는 학교 놀이터에 쓰레기가 있는 걸 알게 되었을 때, 교장 선생님께 친구랑 가서 쓰레기를

주워도 되겠는지 여쭙었어요. 제가 좋은 시민으로서 행동했다는 게 참 뿌듯해요.

**엘리아 디, 10세,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



저는 어린 아기인 남동생들을 돌보시는 엄마를 도와드려요.

**사만타 에스, 8세, 독일 베를린**



**페르미 에프, 8세, 나이지리아 라고스**



할림에게  
인사해요!

“너희가 저저 받았으니 저저 주라.”(마태복음 10:8)

그 날 아침 학교에서 마커스는 낯선 남자아이가 교실로 걸어 들어오는 것을 보았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여러분.” 교실이 잠잠해지자 베커 선생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이 친구는 할림이에요. 할림은 오늘 우리 학교로 전학을 왔고, 사실, 우리나라로 온 지도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할림은 인사를 하면서도 시선은 계속 바닥을 향해 있었어요. 마커스는 할림의 억양이 어딘가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베커 선생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할림이 우리 학교로 전학을 오고 우리와 같은 반에서 지내게 된 걸 정말 기쁘게 생각해요. 할림이 환영받는다든 기분은 느끼도록 우리 모두 잘 도와주면 좋겠어요.”

베커 선생님이 할림의 자리를 알려 주실 때, 마커스는 만약 내가 새로운 나라로 가서 처음 보는 학교에 간다면 얼마나 긴장이 될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아침 간식을 먹은 후, 베커 선생님은 모두를 위한 깜짝 선물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커스는 선생님이 가방에서 무엇을 꺼내는지 보려고 똑바로 앉았어요. 선생님이 꺼내신 건 작은 양동들이었어요. 선생님은 모두에게 양동이를 나눠 주셨어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양동이 같은 것이 하나씩 들어 있어요.” 선생님은 마커스에게 노란색 양동이를 건네며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해 줄 때, 우리의 양동이가 채워져요. 그리고 우리도 사람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하면, 그 사람들의 양동이를 채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여러분을 안아 주실 때, 엄마는 여러분의 양동이를 채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친절한 말을 해 줄 때, 여러분도 그 사람의 양동이를 채우게 돼요.”

마커스는 제일 친한 친구인 케일럽을 보았어요. 케일럽도 노란색 양동이를 받았어요!

베커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번 주 동안 각자의 책상 위에 이 양동이를 계속 둘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 친절한 말을 써 줄 수 있도록



### 우리는 친절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가정, 학교, 직장 또는 [놀이]에서 형제애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러셀 엠 벨슨 회장,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 성도의 빛, 1992년 1월호, 62쪽.

말이에요.” 선생님은 쪽지를 반듯하게 접은 후, 양동이 안으로 떨어뜨리셨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양동이가 있다는 걸 기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는 모두 친절을 베풀어서 누군가의 양동이를 채우는 사람이 되도록 해요.”

마커스는 종이를 한 장 꺼낸 다음, 케일럽에게 무슨 말을 써 줄 수 있을지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 ‘너는 운동을 참 잘해’ 같은 말을 쓸 수 있겠죠. 하지만 마커스는 할림에게 눈길이었어요. 살짝 구부러진 할림의 어깨가 어쩐지 슬퍼 보였어요.

마커스는 전에 살던 곳에서 할림도 친한 친구가 있었을지 궁금했어요. 그랬다면 작별 인사를 할 때 무척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멀리 이사 오는 것도 무서웠을 게 분명해요.

마커스는 책상 위에 놓인 빈 종이를 내려다보았어요. 그러다 무언가 생각이 났고, 종이에 그걸 적었어요.

“할림에게.

우리 학교로 온 걸 환영해. 네가 좋다면, 쉬는 시간에 같이 놀자. 내가 친구가 되어 줄게. 케일럽도 너랑 친구가 되어 줄 거야.

마커스가.”

마커스가 종이를 조심스럽게 접어서 할림의 양동이 안으로 떨어뜨리자 할림이 환하게 웃었어요. 마커스의 마음속에도 마스함과 행복이 밀려왔어요. 마커스는 누군가의 양동이를 채워 주는 일이 참 좋았어요! ●

글쓴이는 미국 아이다호주에 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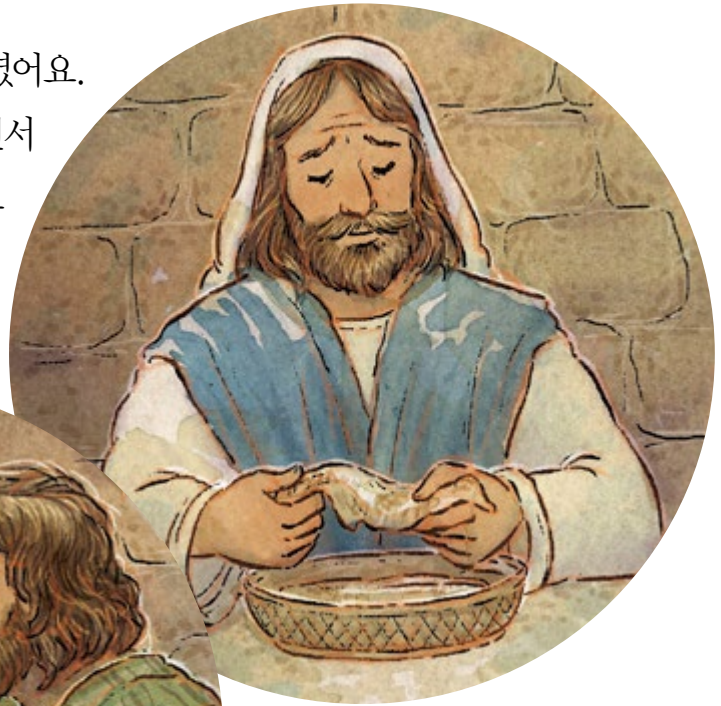
# 성찬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특별한 식사를 하셨어요.  
그 식사를 최후의 만찬이라고 말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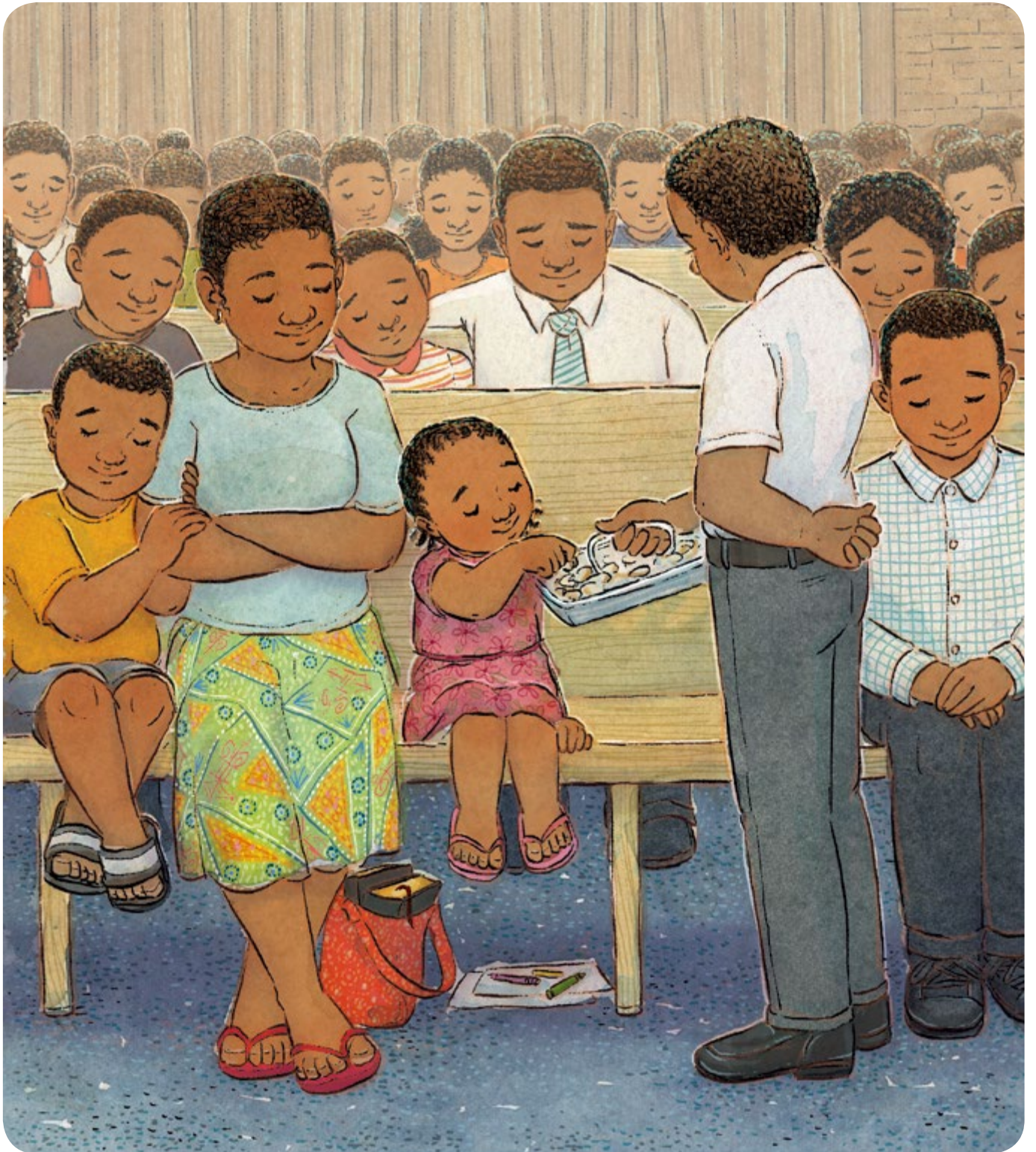
예수님은 빵을 가져다가 축복하셨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그분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  
 빵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잔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건네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분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것을  
 마시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찬송가도 함께  
 불렀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나는 매주 성찬을 취함으로써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어요. ●

마태복음 26장 26~28절과 고린도전서 11장 24~25절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알아보세요.

#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찬을 베풀었어요



##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성전에서 인봉된 아버지와 어머니가 없는 가정이 많습니다. 러셀 엠 넬슨 회장님도 그러한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 중 하나입니다. 각 가정이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는 자녀가 성전의 위대한 축복을 고대하도록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가족 역사를 하도록 도움으로써 우리의 조상도 그러한 축복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친2쪽에서 우리는 자기 가족의 성전 인봉을 고대했던 넬슨 회장님의 지난 이야기를 읽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이번 호 『친구들』에 실린 이야기와 활동들을 어떻게 활용했나요?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전하며,

친구들

추신: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가 없다면, 자녀가 있는 다른 사람에게 『친구들』을 나누어 주면 어떨까요?

New Friend  
50 E. North Temple St.,  
Room 2393  
Salt Lake City, UT 84105 USA  
liahona@ldschurch.org



책 속에 숨어 있는 리아호나를  
찾아보세요!

### 목차

- 친2 제일회장단으로부터: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
- 친4 새로운 장
- 친6 전 세계를 여행하는 사도들  
브라질을 방문한 쿡 장로
- 친8 이안을 기다리며
- 친10 안녕하세요? 여기는 도미니카 공화국이에요!
- 친12 성신은 ...
- 친14 자신의 표준을 따르는 일
- 친15 나는 옳은 일을 선택할 수 있어요
- 친16 빛나는 아이디어 포스터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 친17 어린이 발표
- 친18 할림에게 인사해요!
- 친20 경전 이야기: 성찬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
- 친23 색칠하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찬을  
배우셨어요

친구들 표지  
삽화: 세인 클레스터